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유진주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현 경 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유진주

인 준 서

유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 전·후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부분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200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가 2010년부터 사용됨에 따라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의 차이와 그에 따른 교과서의 수록 내용 및 학습내용의 구성방식에 관해 신·구 교과서의 국악부분을 비교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 교과서로는 개정 전·후의 집필진이 동일한 천재교육 출판사의 교과서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의 내용체계를 비교하고, 각 교육과정의 항목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국악제재곡과 학습내용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음악교과서의 제재곡 중 대표적인 국악 가창곡인 ‘평시조’와 ‘민요’악곡을 학습활동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7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2007년 개정 교과서의 5가지의 장점과 3가지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7년 교과서의 장점은 첫째,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악곡이 수록되었다. 둘째, 모든 주제를 하나의 단원으로 분리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단소’ 학습의 경우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 넷째, ‘평시조’ 학습의 경우 어려운 주제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민요학습의 경우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지역별 대표민요를 통해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5개의 지역별 대표민요를 고르게 수록하였다.

반면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단점은 첫째, 국악에 관련된 창작활동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둘째, ‘정간보의 가치와 유래’에 대한 설명이 7차 교과서에 비해 몇 문장의 단순한 정의 제시에 그쳤다. 셋째, 민요 악곡의 학습활동이 각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한 학습 외에 풍부한 학습활동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개정 전의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사진자료와 다양한 학습 방법 모색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음악 하기’활동을 추구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국악·서양음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항목에 한해서는 교과서 내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나은 음악교육의 개선을 위해 『천재교육』 이외의 교과서에 대한 신·구 교과서 분석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수록내용을 구성방식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음악교육학계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4
3. 연구의 방법	8
4. 연구의 제한점	10
II. 개정 전·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	11
1. 개정 전·후 음악과 내용체계의 차이점	11
2. 활동 영역 비교	13
1) 표현하기	13
2) 노래 부르기	15
3) 악기 연주하기	17
4) 음악 만들기	19
5) 감상하기	20
3. 이해 영역 비교	22
4. 생활화 영역 비교	24
III. 개정 전·후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26
1. 교과서 차례 비교	26
2. 교과서 페이지 수 비교	27

3. 교과서 수록 제재곡 비교	28
4. 교육과정에 의한 내용체계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30
1) 활동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30
2) 이해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50
3) 생활화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61
5. 교과서 대표 제재곡 수록내용 비교.....	68
1) 평시조	69
2) 민요	78
IV. 결론 및 제언	96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개정 전·후 출판사별 교과서 집필진	9
<표 2>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비교	12
<표 3> ‘표현하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15
<표 4> ‘노래 부르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17
<표 5> ‘악기 연주하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18
<표 6> ‘음악 만들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20
<표 7> ‘감상하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22
<표 8> 이해영역 구성 체계 비교	23
<표 9> 생활화영역 세부항목 비교.....	25
<표 10> 개정 전·후 교과서 차례 목록 비교	26
<표 11> 개정 전·후 교과서 서양음악과 국악 부분 페이지 수 비교	27
<표 12> 개정 전·후 교과서 국악 관련 제재곡과 장르 비교	30
<표 13>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31
<표 14> ‘악보 보고 표현하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33
<표 15> ‘듣고 부르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34
<표 16> ‘악기 연주하기’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36
<표 17>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41
<표 18>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42
<표 19> 다양한 매체 활용에 관한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43
<표 20> ‘악곡의 이해와 감상’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45
<표 21> ‘다양한 시대의 음악 감상’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46
<표 22>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47

<표 23> ‘리듬’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50
<표 24> ‘장단’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51
<표 25> ‘가락’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53
<표 26> ‘형식’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55
<표 27> ‘음색’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56
<표 28> ‘악곡의 특징’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57
<표 29> ‘성악곡의 종류’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59
<표 30> ‘기악곡의 종류’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60
<표 31> ‘음악 바르게 즐기기’ 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62
<표 32> ‘음악 경험하기’ 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64
<표 33> ‘음악과 생활’ 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66
<표 34> 평시조 학습목표 비교	69
<표 35> 평시조 학습활동 비교	71
<표 36> 교과서 수록 민요 지역별 비교	78
<표 37> 각 지역 민요의 특징.....	82
<표 38>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의 차이	92

교 과 서 목 차

<교과서 자료 1> 7차 교과서 p.19 단소와 소금연주법.....	37
<교과서 자료 2> 2007년 개정 교과서 p.46-47 단소연주법	38
<교과서 자료 3> 7차 교과서 p.67 비단타령-가락 짓기	42
<교과서 자료 4> 7차 교과서 p.51 바른 감상 태도.....	48

<교과서 자료 5> 2007년 개정 교과서 p.84 바른 감상 태도	49
<교과서 자료 6> 7차 교과서 p.17 아리랑-정간보.....	63
<교과서 자료 7> 2007년 개정 교과서 p.47 단소-정간보	63
<교과서 자료 8> 7차 교과서 p.38 평시조-정간보.....	75
<교과서 자료 9> 2007년 개정 교과서 p.13 평시조-악보.....	76
<교과서 자료 10> 2007년 개정 교과서 p.13 평시조-만화.....	77
<교과서 자료 11> 7차 교과서 p.45 캐지나 칭칭나네-사물놀이	9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그 시대의 문화, 사상, 가치관을 반영하며 인간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그 역할을 하여 왔다. 교육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된 ‘음악 교육’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며 사회성과 인성 함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음악교육의 경우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전통음악 교육은 배우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음악에 담긴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알아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성을 배우는 것이다.¹⁾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9년간에 이르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일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서의 음악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전통음악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에서의 전통음악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지 않다. 다행히 ‘방과 후 특기적성활동’이나 ‘강사풀제-국악예술강사지원’ 등의 제도를 통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에 따르는 차이점이 많이 극복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학교 음악교육의 기본이 되는 음악 교과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음악교과서의 전통음악 부분에 대한

1) 김효선. (200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끊임없는 연구와 제언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국가가 조직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과 실천 내용을 제시하는 학교 교육 지침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이념과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²⁾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은 시대상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 아동·학문의 발달 등에 따라 이전의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개선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조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해방직후의 교수요목 시기를 거쳐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시행된 제1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어 ‘1997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체제와 내용면에서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각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곧 그동안의 한국사회가 사회적, 문화적, 혹은 시대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³⁾

1997년 당시 제7차 교육과정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학교·개인별 수준에 따른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채택하였다.⁴⁾

어떠한 교육과정이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

2)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체육,음악,미술)』. 광주 : 한솔사. p.123

3) 김아름. (2009). 제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 중학교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교육과학기술부. 상계서. p.130

과 교육 내용의 개선점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는 유지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1997. 12. 30.)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 개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⁵⁾

교육과정 개정은 전반적인 교과에 걸쳐 이루어진다. 음악과 교육과정도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음악교육의 기본 철학과 목표 및 내용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목표에 따라 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의 항목들이 재조직되었다. 교육과정의 시행은 새롭게 제작된 교과서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교과서도 새롭게 제작되어야만 한다.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이지만 교육과정을 일차적으로 접하고 해석해야 할 대상은 교사이다.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중요성은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교육과정의 내용을 전달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해당 교육과정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점은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신·구 교육과정 간의 차이점과 보완점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여야만 국가의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대로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학교 급별, 학년별로 차례로 시행되게 되는데, 2009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2010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도입되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에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롭게 제작된 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5) 교육과학기술부. 상계서. p. 123의 내용 참조하여 요약하여 서술.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요구대로 충실하고 교수·학습에 효율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의 참고 지침과 기본재료가 되는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해석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얼마나 적용되었고 어떻게 풀어내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라 제작된 신·구 음악교과서의 전통음악부분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내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개정 전·후의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부분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 신·구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와 신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1) 신·구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신·구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로는 6·7차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는 물론,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도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음이 조사되었다.

김찬미⁶⁾는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

과정 중심으로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의 본질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활동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음악하기’를 강조하고, 교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집필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교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포괄적 목표들이 제시되었다고 집필하였다. 생활화 영역을 강조하고 국악의 다양한 수업 방법론을 제시하여 7차 교육과정을 많이 보완하였으며,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과목별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집필하였다.

김아름⁷⁾은 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학교 음악 교육과정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내용이 비교적 적정화 되었으며 음악교육의 실용성이 강조되었고 다양한 음악 문화가 폭넓게 수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악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구체화되어 음악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보다 실천적인 음악교육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주⁸⁾는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음악과 전통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의 구성이 명료화되고 체계화 되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세분화되고, 내용체계가 이해영역, 활동영역, 생활화영역의 세 영역으로 나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해영역에서는 전통음악 관련 내용이 심화되고 다양한 악곡의 제시가 이루어졌으며, 활동영역에서는 다양한 악곡의 경험을 통해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하고, 생활화영역을 통해 음악교육이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학교 급별로 제시되고 전통

6) 김찬미. (2010).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 : 고등학교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아름. (2009).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 중학교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홍영주. (2007). 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연구 : 초등 음악과 전통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음악 부분의 교수 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시 평가를 강조하였음이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김희진,⁹⁾양승균,¹⁰⁾김가숙,¹¹⁾등의 연구에서 신·구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 관해 조사하였다.

권은주¹²⁾는 제7차 5·6학년 음악 교과서와 제6차 교과서의 전통음악 부분을 비교하여 기보방법, 장단 및 리듬, 구성음 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보법에 있어서 6차에는 없었던 정간보가 7차 교과서에서 단소연주를 통해 제시되었고, 리듬 및 장단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민요장단 외에 정악장단 등 다양한 장단을 소개하여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상희¹³⁾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부분을 연구하였는데 이해영역은 이론적 심화과정의 단계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창작영역은 전통음악 비중이 늘어나고 제재곡이 다양해졌다고 연구되었다. 기악영역은 장구와 단소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악기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 상황상의 제약이 있다고 연구되었다. 창작영역은 특정 형식에 구

9) 김희진. (2009). 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양승균. (2000). 6차·7차 음악교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가숙. (2003). 제6·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권은주. (2003).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의 전통음악 분석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김상희. (2007).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에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상 영역은 다문화주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식과 시대 및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 교과서를 모두 분석한 이명진¹⁴⁾의 연구와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5종의 음악교과서를 감상영역 중심으로 연구한 박모라¹⁵⁾의 연구 등이 있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신·구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비교 분석만을 다룬 연구가 많았으며 교과서 분석에 관한 논문들은 한 가지 시기의 교육과정과 해당 학년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는 김가숙의 연구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고등학교 교과서와의 연계성에 의한 연구였으며 교과서 전종의 수록악곡 중심으로 비교하여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학교 음악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함께 비교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2007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는 많았으나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가 2010년부터 도입되므로 이 또한 교육과정만을 비교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새롭게 제작된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신·구 교과서를 각각 분석하고 앞서 비교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비교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4) 이명진.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교과서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박모라. (2001).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5종의 비교 연구 :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4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신·구 교과서의 바탕이 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인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동일한 학습내용을 의미하는 세부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개정 전·후의 교과서로 천재교육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천재교육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개정 전과 후의 신·구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 해당 교과서의 저자에 관한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집필진이 달라진 교과서는 그 해석과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장 동등한 조건하에 연구할 수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집필진을 비교해 보았다. 각 교과서의 집필진을 <표 1>과 같이 비교한 결과, 2007년 개정 교과서가 출판되면서 제외된 출판사와 신설된 출판사를 제외하고 국악 분야 집필진이 동일한 교과서인 두산동아, 지학사, 천재교육 등 3종의 교과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두산동아와 지학사 교과서는 국악분야 저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고 천재교육 교과서는 7차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의 집필진이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천재교육 출판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신·구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국악 가창제재곡인 평시조와 민요에 대해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항목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비교는 교과서의 수록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과서의 수록 제재곡의 학습활동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여러 장르의 악곡 중에 신·구 교과서에 같은 형식과 악곡이 수록된 평시조와 민요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교과서 선정에서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를 모두 제작한 각 출판사의 집필진을 비교한 표이다.

<표 1> 개정 전·후 출판사별 교과서 집필진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	출판사	집필진
도서출판태성	서한범(국)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국)	도서출판태성	주대창 정은경(국) 노혜정 김동수
(주)두산	이홍수 황병훈(국) 이성훈 김향정	두산동아(주)	최은식 석문주, 권덕원(국) 황병훈(국) 이은하 강선영 오지영 송주현 홍수민 박종화
교학연구소	조창제	교학사	이홍수 유명국 김일영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국) 홍종건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국) 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주)지학사	윤명원(국) 김영희	(주)지학사	윤명원(국) 정길선(국) 황병숙 강세연
성안당	최필립 김영재(국) 신금식 유제향	성안당	정옥희 이내선 이화중 박은정 설창환 이현창
(주)천재교육	백병동 최현(국)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천재교육(백)	백병동 최현(국)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제7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제7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함에 있어 내용체계만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만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해석한 내용체계를 토대로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므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개정 중점 및 음악과의 성격과 목표,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지침으로써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항목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천재교육 출판사만으로 제한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2000년도에 검정된 천재교육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에 검정된 천재교육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셋째, 천재교육 출판사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내용 중 국악에 관련된 제재곡 및 학습내용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으며 창작국악곡은 국악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제시된 제재곡만을 창작국악곡으로 인정하였다.

넷째, 창작과 생활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악과 서양음악에 상관없이 연구에서 함께 다루었다.

Ⅱ. 개정 전·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

교과서 제작에 필수 지침서인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내용이 내용체계 면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제시되었는지 분석하고, 생략되거나 추가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항목들에 한해 함께 분류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1. 개정 전·후 음악과 내용체계의 차이점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은 내용체계 면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7차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 이해, 생활화의 세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생활화를 한 영역으로 따로 분리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활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만 나누어져 있고 활동영역 안에서 생활화의 내용이 소극적으로 제시된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의 생활화를 음악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며 생활화영역을 강조하였고 교육과정 내용체계도 활동, 이해, 생활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 활동영역의 하위영역의 가짓수가 달라졌다. 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가지 영역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표현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활동영역의 하위영역을 칭하는 용어가 달라졌다.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용어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되었다.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음악하기’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임을 알 수 있는 용어이다.

위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비교

7차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표현하기
	가창		노래 부르기
	기악		악기 연주하기
	창작		음악 만들기
	감상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 	

마지막으로, 위의 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자기 평가의 항목이 생략되었다. 이는 음악 교과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업 당시의 실력이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 영역별 평가는 생략하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생활화’ 영역을 통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활동 영역 비교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활동영역 비교에 있어서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활동영역의 세부영역인 ‘표현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세부항목을 비교함에 있어 교과서 비교 분석에도 용이하도록 같은 학습을 의미하는 항목별로 정리해보았다.

1) 표현하기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가장 큰 차이점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표현하기’ 영역이다. 7차 교육과정 활동내역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가지 영역 외에 ‘표현하기’ 영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내용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지도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선정되고 조직된 결과로, 동일한 학습 요소에 대한 평가를 중복하지 않게 하여 결과적으로 교수·학습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표현하기’영역은 7차 교육과정의 ‘가창’과 ‘기악’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학습요소를 통합하여 ‘표현하기’라는 용어로 정의한 것이므로, 7차 교육과정의 ‘가창’과 ‘기악’영역의 학습요소 중 ‘표현하기’로 정의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기’영역으로 분류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에 대한 ‘가창’, ‘기악’활동 항목과 ‘보고 부르기’, ‘보고 연주하기’의 활동항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와 ‘악보 보고 표현하기’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7차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바른 자세·호흡, 정확한 발음으로 부르기’만을 분류하였다.

‘기악’활동의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는 자칫 함께 분류가 가능해보이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기 연주하기’활동에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활동이 있으므로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는 ‘악기 연주하기’에서 분류하도록 한다. 따라서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는 ‘노래 부르기’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고 ‘바른 자세·호흡, 정확한 발음으로 부르기’만을 동일한 활동항목으로 보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7차 교육과정의 활동 항목으로는 ‘가창’, ‘기악’활동 항목의 ‘지휘하기’활동을 함께 분류하였다. ‘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와 ‘지휘하기’는 다른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지휘’에 대한 학습활동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활동항목으로 보았다.

‘악보 보고 표현하기’는 가창과 기악 영역에서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와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악보 보고 표현하기’라는 용어으로써 단독으로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악보 보고 표현하기’는 악보 독보 능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강조점인 생활화 영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악보를 스스로 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생활에서도 음악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악보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여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표현하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표 현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호흡, 정확한 발음으로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위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위 연주하기 • 기악 반주에 맞추어 표현력 있게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 중창, 합창 지휘하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독주, 중주, 합주 지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 보고 표현하기

2) 노래 부르기

7차 교육과정의 ‘가창’ 영역 학습요소 중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인 ‘표현하기’활동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노래 부르기’활동과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7차 교육과정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에

제시된 각각의 내용들에 정확한 예를 들어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노래를 부르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곡·민요 부르기’와 ‘다양한 나라(아시아)의 노래 부르기’로 영역을 지정해주었고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을 듣고 부르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와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로 지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학습 내용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인 내용과 수준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조직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통점인 ‘무리 없는 발성으로 부르기’는 가창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발성법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써 학생들의 성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변성기에 성대를 상하지 않도록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분석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없는 항목은 따로 분리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곡·민요 부르기’와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항목들은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을 듣고 부르기’항목과 비교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다른 나라(아시아)노래 부르기’는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부르기’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비교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 전과 후의 활동영역 중 ‘노래 부르기’의 세부 항목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노래 부르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노 래 부 르 기	• 악곡을 듣고 부르기	• 가곡·민요 부르기
		•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부르기	• 다른 나라(아시아)노래 부르기
		• 간단한 2부 합창하기
	•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가하기	
• 무리 없는 발성으로 부르기	•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 부르기	

3) 악기 연주하기

7차 교육과정의 ‘기악’ 영역 학습요소 중에서 ‘표현하기’활동으로 분류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기 연주하기’활동과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 ‘기악’영역의 내용은 7, 8, 9학년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7차 교육과정 해설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년에 따라 악곡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제재곡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된 수준으로 여러 가지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연주하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악기 연주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제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합주하기’ 등의 활동 안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또한 연주곡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통합된 내용을 제시하고 세부설명적인 내용은 생략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악기 연주의 습득 자체가 어려운데 한정된 수업시수 안에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인 ‘내용 및 수준의 적정화’에 의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연주하기’와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가하기’와 일치하는 활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었으며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악기 연주하기’활동의 항목인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와 ‘가락 악기 연주하기’, ‘합주하기’는 7차 교육과정의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악기 연주하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악기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가하기 	

4) 음악 만들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만들기’를 기준으로 7차 교육과정의 ‘창작’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가창’과 ‘기악’영역은 ‘표현하기’영역으로 대체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였으나 ‘창작’영역은 ‘표현하기’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임에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창작’영역의 항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7차 교육과정의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와 ‘배운 곡 변화시키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즉흥적으로 표현하기’로 통합하여 제시하였고 7차 교육과정에서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음악의 요소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 ‘곡에 어울리는 반주 만들기’,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들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로 통합하여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만든 곡 발표하기’와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된 항목이며, 반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는 7차 교육과정에는 없었으나 신설된 항목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활동들은 21세기에 IT강국으로 급부상한 현대사회의 디지털문화 풍토에 발맞춘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누구나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매체를 다루고 사용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적용하여 음악교육에도 활용하도록 조직한 교육과정 내용인 것이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존의 음악을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가창과 기악활동만으로는 부족한 음악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고, 음악적 표현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음악 만들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 만 들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 배운 곡을 변화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어 적기 곡에 어울리는 반주 만들기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든 곡 발표하기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5) 감상하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를 기준으로 7차 교육과정의 ‘감상’ 내용을 분류해 본 결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영역도 항목면에서 통합,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에서 7차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악곡의 특징과 악곡의 종류를 제시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이해’활동이라고는 하나 악곡의 특징과 종류를 학습함에 있어 감상활동은 필수적이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감상하기’영역이 전적으로 축소 및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 이해하여 듣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며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기’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듣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8, 9학년 ‘감상하기’영역에 의하면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를 통해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분리해서 조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표현하기’,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기’,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 구별하며 듣기(협주)’등은 축소되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듣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노래 부르기’영역의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등에서 감상하고 가창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감상하기’영역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내용면에서 생략된 것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의식과 음악)’와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영역에는 해당항목이 없으나 ‘바른 감상 태도 갖기’와 더불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생활화’영역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이므로 ‘생활화’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감상하기’ 영역 세부항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감 상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듣기 •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감상태도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기 •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를 구별하며 듣기(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기(의식과 음악) •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

2. 이해 영역 비교

제7차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의 이해 영역은 크게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 7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져있는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의 이해영역은 ‘리듬’, ‘장단’, ‘가락’, ‘화성’, ‘형식’,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 등 8가지 구성 요소로 나

누어져있다.

이해영역의 구성요소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8> 이해영역 구성 체계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 영역	리듬	리듬
		장단
	가락	가락
	화성	화성
	형식	형식
	음색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
	셈여림	
	빠르기	

7차 교육과정에서는 ‘리듬’안에 ‘장단’을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리듬’과 ‘장단’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셈여림’과 ‘빠르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의 ‘표현하기’영역 중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를 통하여 학습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는 없던 ‘악곡의 특징’과 ‘악곡의 종류’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에 추가되었는데 7차 교육과정의 ‘형식’에 제시된 기악곡과 성악곡에 대한 이해내용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활동’영역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총괄적인 ‘이해’영역에 제시됨으로써 모든 음악활동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습

요소이자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해’영역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비교는 개정 전·후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해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3. 생활화 영역 비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7차 교육과정의 활동, 이해영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생활화’영역이다. 음악교과를 학교 현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제 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화’는 음악 교과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 느낌 등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음악의 가치를 느끼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수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화’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이었으나 이전까지는 교육과정 활동 영역 안에서의 소극적인 ‘생활화’였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당당히 하나의 영역으로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생활화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진 않았지만 감상활동의 세부 항목에서 ‘생활화’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화’영역과 7차 교육과정안에서 생활화로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을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안에서 생활화로 정의할 수 있는 항목은 ‘감상하기’영역의 세부 항목인 ‘바른 감상 태도 갖기’와 ‘음악을 듣고 평하기’,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 등 세 가지 항목이다.

‘바른 감상 태도’에 관한 항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의 세부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7차 교육과정의 ‘바른 감상 태도 갖기’는 바른 태도로 감상함으로써 음악에 더욱 집중하고 음악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으므로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함양하고 음악의 미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와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와 동일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을 듣고 평하기’는 음악을 듣고 그에 따른 느낌이나 비판 등을 표현하는 활동으로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기’와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와 동일한 활동으로 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는 오랜 옛날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삶과 관련된 음악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삶과 생활과 연관된 음악과 활동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와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와 동일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화’항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 생활화영역 세부항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감상태도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듣고 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외의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 (의식과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Ⅲ. 개정 전·후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보았다.

1. 교과서 차례 비교

먼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 비교에 앞서 일반적인 교과서 분석 단계로 두 교과서의 기본적인 수록내용을 차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차례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0> 개정 전·후 교과서 차례 목록 비교

교과서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차례 목록	가창곡	가창
	감상기행	기악
	이해	감상
	학습자료(학습정리 포함)	창작
	보고 부르기와 듣고 적기	학습자료
	의식의 노래	학습정리
	사진출처	참고문헌 및 사진 출처

차례의 목록 구성만으로는 각 부분별 정확한 비율의 비교는 어렵지만,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가창’, ‘기악’, ‘감상’, ‘창작’영역을 모두 엄두에 두고 골고루 수록하고자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교과서 페이지 수 비교

교과서의 페이지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차례 및 교과서에 기재된 페이지 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표지를 제외하고 표지 안쪽의 참고사진자료나 그림 등 교과서 내의 학습에 관련된 모든 페이지 수를 포함한 것임을 밝혀둔다.

두 교과서의 국악과 서양음악 분배율을 보기위해 영역별로 교과서 페이지 수를 정리해보았다. 두 교과서의 공통 수록내용인 애국가, 차례, 학습정리,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등에 7차 교과서는 6페이지가 사용되었고, 2007년 개정 교과서는 13페이지가 사용되었다. 이를 제외하고 서양음악과 국악의 순수한 제재곡 할당량과 참고사진, 그리고 서양음악과 국악 모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참고사진이란, 교과서 본문에 속한 내용이 아닌 표지 안쪽에 수록된 참고용 그림이나 사진을 의미한다.

<표 11> 개정 전·후 교과서 서양음악과 국악 부분 페이지 수 비교

교과서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서양	국악	공통	서양	국악	공통
참고사진자료	8	1	•	3	2	•
제재곡	45	26	4	49	32	23
합계	53	27	4	52	34	23
백분율	63.1%	32.1%	4.8%	47.7%	31.2%	21.1%
전체 페이지수	84			109		

위의 표의 백분율을 보면 7차 교과서에서는 국악부분보다 서양음악의 내용이 2배 가까이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서양음악의 분량이 줄었으며 국악부분도 소량 감소를 보이고, 공통 학습내용의 분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교과서 페이지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페이지 수로는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서양음악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국악부분의 페이지 수는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교과서가 증가하였다.

교과서의 전체 분량을 보면 7차 교과서는 전체 84페이지 중에 국악 부분 27페이지, 2007년 개정 교과서는 109페이지 중에 34페이지로 서양음악이 1페이지 줄어들었으나, 7차 교과서의 참고사진 페이지 수가 많았으므로 순수 제재곡만을 비교하면 서양음악은 4페이지 증가하였고, 국악은 6페이지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 교과서 수록 제재곡 비교

위의 교과서 페이지 수 비교를 통해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전체분량과 공통부분, 그리고 국악부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 두 교과서의 국악 제재곡을 비교해본 결과 수록된 제재곡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감상 및 이해활동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비교하도록 하며 우선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중심으로 비교해보았다.

1) 제재악곡 비교

7차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관련 제재곡은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 ‘아리

랑’, ‘농부가’, ‘꽤지나 칭칭나네’, ‘신고산타령’, ‘성주풀이’, ‘비단타령’, ‘산촌’, ‘산도깨비’, ‘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 ‘풍구소리’ 등 총 11곡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관련 제재곡도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 ‘몽금포타령’, ‘닐리리야’, ‘강강술래’, ‘꽤지나 칭칭나네’, ‘오돌또기’, ‘도라지타령’, ‘판소리-홍보가’, ‘국화 옆에서’, ‘상저가’, ‘사물놀이’ 등 총 11곡으로 동일하다.

교과서 내의 제재곡에 대한 기준을 가창곡으로 전제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사물놀이’는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제재곡의 기준을 학습활동이 있는 주제로 전제한다면 7차 교과서에 참고악곡으로 수록된 ‘풍구소리’를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창극-홍보가’도 제재곡으로 포함하자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제재곡 수는 12곡이 된다. 따라서 악곡 수만으로는 국악 관련 제재곡과 학습내용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2) 제재악곡의 장르 비교

7차 교과서 제재곡의 장르는 ‘평시조’, ‘민요’, ‘판소리’, ‘창작국악곡’, ‘기타악곡’ 등 5가지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 제재곡의 장르도 ‘평시조’, ‘민요’, ‘판소리’, ‘창작국악곡’, ‘기타악곡’ 등 5가지로 수록된 장르의 수는 동일하다.

‘평시조’, ‘민요’, ‘판소리’, ‘창작국악곡’의 장르는 동일하게 수록되었고 7차 교과서의 기타악곡인 ‘휘모리잡가’는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고려속요’로 대체되었다. 또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기악 학습 내용으로 사물놀이와 단소에 대한 학습 내용도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2> 개정 전·후 교과서 국악 관련 제재곡과 장르 비교

장르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태산이 높다하되
민요	아리랑, 농부가, 꿩지나 칭칭 나네, 신고산타령, 성주풀이, 풍구소리	몽금포타령, 널리리야, 강강술래, 꿩지나 칭칭나네, 오들또기, 도라지타령
창작국악곡	산촌, 산도깨비	국화 옆에서
판소리	비단타령	홍보가(창극-홍보가)
기타	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	고려속요-상저가, 사물놀이, 단소

4. 교육과정에 의한 내용체계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1) 활동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두 교과서의 수록내용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활동영역의 하위영역인 ‘표현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등 5가지의 세부항목에 따라 비교하였다.

(1) 표현하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표현하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3>에 근거하여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별로 비교해보았다.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는 서양음악의 발성법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지휘’도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으로 국악 관련 제재곡의 학습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①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는 제재곡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련된 학습활동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많은 악곡의 학습활동에서 나타나있었는데 특히 7차 교과서에서 대부분 가창활동으로 제시되었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와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워 연주하기’ 등 악기 연주에 관해서는 일치하는 학습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제시한 제재곡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3>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표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현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워 부르기 • 기악 반주에 맞추어 표현력 있게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제 재 곡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 아리랑, 농부가, 캐지나 칭칭나네, 신고산타령, 산도깨비, 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 강강술래, 오돌또기, 고려속요-상저가, 사물놀이

7차 교과서에서는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를 비롯하여 ‘아리랑’, ‘농부가’, ‘쾌지나 칭칭나네’, ‘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에서 제재곡의 특징이나 느낌, 분위기를 살려서 노래해보자는 학습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산도깨비’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흥겹게 노래 불러보자’는 학습활동과 ‘신고산타령’의 ‘함경도 지방 민요의 특징을 살려 외어서 노래 불러 보자’는 학습활동은 정확하게 교육과정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를 비롯하여 ‘강강술래’, ‘오돌또기’, ‘고려속요-상저가’, ‘사물놀이’등에서 제재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이 나타나 있었다. 이 외에도 지역별 대표적인 민요로 수록된 몽금포타령, 널리리야, 쾌지나칭칭나네 등의 악곡도 각 지역의 특징을 알고 노래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있었다.

특히 두 교과서의 공통점으로는 모두 평시조와 남도민요의 제재곡에서 악곡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하는 활동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음악의 특징 중에서도 요성과 시김새의 표현이 도드라지는 악곡들에서 더욱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하도록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악보 보고 표현하기

다음으로 ‘악보 보고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제재곡과 학습활동을 비교해 보았다. ‘악보 보고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제재곡은 서양 음악과 국악을 막론하고 교과서 내의 악보가 수록된 모든 악곡이 해당된다. 그러나 오선보는 서양악보의 기보법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악의 고유한 악보 기보법이며 독보를 위해서 학습이 필요한 정간보로 제시된 제재곡을 ‘악보 보고 표현하기’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악보 보고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정간보의 학습내용을 제시한 제재곡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4> ‘악보 보고 표현하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표현하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 보고 표현하기
제재곡	아리랑-가창 및 단소연주 동창이 밝았느냐	단소 연주-도라지타령 태산이 높다하되

두 교과서 모두 ‘민요’와 ‘평시조’악곡을 정간보로 제시하였는데 7차 교과서에는 경기민요 ‘아리랑’과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를 정간보로 수록하였고,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경기민요 ‘도라지타령’과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를 수록하였다.

‘민요’의 경우를 보면 7차 교과서에는 가창곡으로써 아리랑을 수록하였으나 정간보로 악곡을 제시함으로써 단소로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고,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 단소연주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도라지타령을 제시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단소를 익히는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는데, 단소 연주법을 익히고 도라지타령에 사용되는 음을 소리 내어 보고, 악곡의 박자를 정간보를 통해 보는 법을 익히며 결과적으로 도라지타령을 연주하도록 단계별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있어 ‘정간보’와 ‘단소’ 두 가지 주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시조’의 경우 7차 교과서에서는 시조 악곡을 정간보 그대로 사용하여 정간보를 보고 노래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3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조’의 구성음에 착안하여 제재악곡을 3음 구성의 단순한 그림악보 형태로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두 교과서의 평시조는 뒤에 다시 자세히 비교하도록 하겠다.

(2) 노래 부르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노래 부르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4>에 근거하여 ‘노래 부르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 별로 비교해보았다.

7차 교과서의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하기’는 ‘신고산타령’에서 가락을 변주하여 불러보고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들 수 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간단한 2부 합창하기’항목은 서양음악의 합창 활동이며 ‘다른 나라(아시아)노래 부르기’는 국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듣고 부르기’ 항목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제재곡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5> ‘듣고 부르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듣고 부르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듣고 부르기	• 악곡을 듣고 부르기	• 가곡, 민요 부르기
		•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제재곡	농부가 동창이 밝았느냐	몽금포타령, 널리리야, 강강술래, 꿩지나 칭칭나네, 오돌또기, 상저가
		태산이 높다하되
		국화 옆에서

7차 교과서의 ‘악곡을 듣고 부르기’에 해당하는 제재곡은 남도민요인 ‘농부가’와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듣고 부르기’에 해당하는 제재곡은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와 창작 국악곡 ‘국화 옆에서’이다.

‘악곡을 듣고 부르기’라는 활동은 단순하게 악보를 보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노래를 학습하기에 필요한 항목으로써 7차 교과서에서는 남도민요와 시조를 제시했는데 두 곡 모두 특유의 시김새와 요성표현이 특징이므로 전문가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이 학습에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어떤 악곡을 듣고 부를지에 관해 정확하게 명시하였으므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시조와 창작 국악곡을 제시하였다. ‘시조’에는 ‘태산이 높다하되’를 제시하였고, ‘창작 국악곡’에는 ‘국화 옆에서’를 제시하였다. ‘창작 국악곡’에는 다양한 악곡이 있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전통성악곡인 가곡 풍으로 작곡된 악곡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제재곡을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재곡을 선택함과 동시에 두 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각각은 ‘시조’와 ‘창작 국악곡’에 해당하는 곡이면서 동시에 두 곡을 전통성악곡과 창작성악곡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제재곡을 선정하여 비교 학습을 통해서도 악곡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3) 악기 연주하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악기 연주하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5>에 근거하여 ‘악기 연주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별로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하기’와 ‘다양한 시대

와 문화권의 악곡 연주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활동은 없었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관련 항목이 없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악기 연주하기'에 관한 항목이 순수한 악기 연주에 관한 내용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6> '악기 연주하기'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악기 연주하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악기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주하기
학습내용	장구, 단소, 소금	사물놀이, 단소연주
		단소연주
		사물놀이

위의 표를 통해 국악 관련 악기 연주는 공통적으로 '단소'가 제시되었으며 이외에도 7차 교과서는 단소 외에 '장구'와 '소금'에 대한 연주법을 제시하였고,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사물놀이'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장구의 각 명칭과 연주법, 연주자세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2007년 교과서에는 장구 연주법에 대한 제시는 없이 일부 민요곡의 학습활동에 의해서만 언급되어 있었다.

7차 교과서의 '소금'과 '단소'는 <교과서 자료 1>과 같이 제시되었는데 간략한 사진과 지공 막는 법을 통한 악기의 음계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어 악곡을 연주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단소'연주는 앞서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항목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교과서 자료 2>와 같이 기본자세부터 악기의

단소를 연주할 때의 바른 자세와 소리 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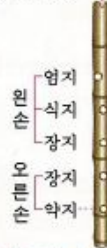
바른 자세와 소리 내는 방법



- 시선은 앞을 향한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의 힘을 뺀다.
- 악기를 몸과 45° 각도를 이루도록 하여 취구를 입술 중앙에댄다.
- 손가락과 손목에 힘을 뺀 상태로 지공을 막는다.
-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퍼진 상태에서 입김의 방향을 약간 밑으로 향하게 하여 소리 낸다.

바른 자세로, 운지법을 정확히 지켜 단소의 기본음을 소리 내어 보자.

취구(부는 곳)



● 막기 ○ 반 막기 ◯ 열기

입김을 보통으로 분다. 입김을 세게 분다.

엄지	제1공	●	●	●	●	●	○	●	●	●	●	●	●
식지	제2공	●	●	●	●	○	○	●	●	●	●	●	○
장지	제3공	●	●	●	○	○	○	●	●	●	○	○	○
장지	제4공	●	○	○	○	○	○	●	●	○	○	○	○
약지	제5공	●	○	○	○	○	○	●	○	○	○	○	○

울명 → 夾 仲 林 南 無 演 汰 泐 泐 淋 浦 漚 瀟

(약지로 누르는 제5공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실음은 한 옥타브 위)



Q 소박이란?

A 정간보 한 칸을 박으로 할 때, 1 정간 박은 1/3 박의 소박 3개, 또는 1/6 박의 소박 6개가 모여 이루어진다.

악기의 음색을 느끼며, '도라지타령'에 나오는 음계를 익혀 보자.

음계 仲 林 無 演 汰 泐 淋 漚

같은 음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을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 내어 보고, 1박이 3소박, 6소박으로 이루어지는 리듬에 유의하여 다음 가락을 연주해 보자.

① 演 汰 - 汰 汰 ② 汰 - 泐 汰 - 演 無 ③ 林 無 - 演 林 林 -

바른 자세로, 세마치에 맞추어 '도라지타령'을 흥겹게 연주해 보자.

세마치

도라지타령

경기도 민요

①	① -	○ -											
漢 汰 -	汰	汰	汰	汰 - 漢	無	沖		淋 - 沖	汰 - 沖	汰 - 漢	無	v	
도 -	라	지	도	- 라	지	백		도 -	라	- - -	지		
漢 - 汰	汰	汰	漢 - 汰	漢 - 無	林 仲 -	林	無 - 漢	林 林 -	仲			△	
심 - -	심	산	- 천	- 에	-	백	도 -	라 -	지			v	
林 - 仲	林 - 無	仲	林 - 仲	林 - 無	仲	無	無	- - 漢	無		漢		
에 - 해	- 요	에 - 해	- 요	에	해	-	야					v	
汰	汰	汰	汰	- - 漢	無	沖 沖 -	沖 - 漢	淋 - 沖	汰 - 沖	汰 - 漢	無		
어	여	라	난	-	다	지	화	자 -	자 -	중 - - -	다		
漢 - 汰	汰 汰 -	汰 - 汰	漢 - 汰	漢 無 -	林 - 仲	林	- - 漢	林 林 -	仲		- - △		
저	기	저	산	밑	에	도 -	라 -	지	가	한	들 -	한 -	들

v : 숨표 △ : 심표 | : 마침표

수준별 연습

우리나라 민요(21~25쪽)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민요를 단소 음계로 고쳐서 연주해 보자 (제주도 지방은 등부 민요로 연주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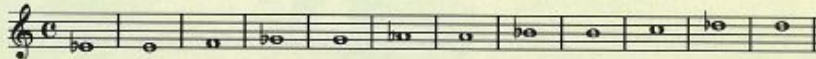
정간보

세종 대왕이 만든 악보로, '우물 정(井)' 자 모양의 1칸을 1박으로 하여 그 안에 율명을 적어 음높이와 음길이를 나타낸다.

- 정간보 읽는 순서와 1정간의 리듬

①	②	① ② ③	① ③	① ③ ④	① ③ ⑤
			② ④	② ③ ⑤	② ④ ⑥

- 12율명 : 12개의 음이름을 '율명' 이라고 하고, 율명의 첫 글자만으로 음높이를 나타낸다. 한 옥타브 위는 삼수변(;)을 붙여 '청' 으로 읽고, 한 옥타브 아래는 사람인변(∩)을 붙여 '탁' (또는 '배')으로 읽는다(㉠ 漢 : 청황, 橫 : 탁황(또는 배황)).



黃鍾 大呂 太簇 夾鍾 姑洗 仲呂 蕤賓 林鍾 夷則 南呂 無射 應鍾
(황중) (대려) (태주) (협중) (고선) (중려) (유빈) (임중) (이칙) (남려) (무역) (응중)

또한 7차 교과서에서 타악기로 ‘장구’가 제시되었다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사물놀이’가 타악기 연주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여러 타악기군의 합주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항목으로는 ‘합주하기’로 분류하였는데 ‘사물놀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사물놀이의 뜻과 유래를 먼저 이해하고, 각 악기의 생김새와 소리, 특색을 경험하도록 하며 반주에 사용되는 장구 장단과는 다른 사물놀이의 여러 장단들을 배우며 결과적으로 모듈별로 즉흥연주까지 가능하도록 ‘사물놀이’ 또한 단계적으로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7차 교과서에서는 악기 연주에 관해 ‘어떻게’에 관한 학습내용이 제시된 교육과정에 비해 정작 교과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 제시로 실제 악기 연주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와 ‘어떤 악기를’, ‘무엇을’에 관해 제시된 교육과정에 의해 악기 연주에 대해 자세, 악보 보는 법, 연주하기 등 단계별 학습으로 제시하여 확실한 이해와 정확한 연주가 가능하도록 수록하였다.

(4) 음악 만들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음악 만들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6>에 근거하여 ‘음악 만들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별로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며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에 관련된 국악 부분의 학습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분석에서 다루지 않았다.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에 관련된 항목은 7차 교육과정에는 없는 항목이기에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으로써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인식되어 비교항목으로 포함하였다.

①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기’활동이 나타난 국악 악곡으로 다음의 제재곡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7>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음 악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만 들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 배운 곡을 변화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제 재 곡	쾌지나 칭칭 나네, 신고산타령, 성주풀이	사물놀이, 널리리야, 강강술래

7차 교과서의 ‘쾌지나 칭칭나네’는 메기는 소리의 가락과 가사를 바꾸는 활동이며, ‘신고산타령’은 제재곡의 앞 4마디 가락을 자유롭게 변주하여 부르는 활동으로 두 곡 모두 ‘배운 곡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성주풀이’의 학습활동에 제시된 타악기와 노래의 가락을 새롭게 만들어 연주해 보자는 학습활동은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에 일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 악곡을 통한 가락의 창작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고, ‘널리리야’, ‘강강술래’에서 볼 수 있는 장구장단의 변화형에 관한 창작과 ‘사물놀이’의 기본 장단을 즉흥적으로 변형해가며 연주하는 활동 등으로만 나타났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는 ‘이해’영역의 ‘화성’을 대입해서 한 도막 형식의 가락을 짓는 활동으로 제시되었을 뿐, 국악 관련 ‘간단한 형식의 가락’을 짓는 창작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위의 두 가지 ‘음악 만들기’ 항목에 의하면 7차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 따라 곳곳에서 장단뿐만 아니라 가사와 가락에 변화를 주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민요풍의 가락을 교과서 위에 직접 그려 넣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악보가 수록되어 있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가락이나 가사를 변형하는 국악 관련 창작활동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③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학습활동이 제시된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표 19> 다양한 매체 활용에 관한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음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극 ‘홍보가’ 중 한 장면 만들기 -상황이나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넣어 꾸미기 -컴퓨터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만들기’ 활동에서 큰 차이점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변화가 학습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은

서양음악과 국악에 상관없이 음악적 표현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창극-홍보가’의 한 장면을 학생들이 스스로 재구성하여 만들어보는 활동은 직접 경험함으로써 국악을 이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학습활동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활동을 통한 창작활동 줄어들었으나,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수록 내용에 의하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필요한 창작활동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 만들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즉흥 연주’에 관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또한 곡마다 ‘음악 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제시한다 하여도 정해진 시수 안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배경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탄생한 것이므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에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활동에서 국악 관련 내용의 즉흥연주에는 장구 장단과 사물놀이 장단을 변형해서 연주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악풍의 가락 짓기’ 활동이 없는 점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아쉬운 점 중의 하나이다.

(5) 감상하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감상하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7>에 근거하여 ‘감상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별로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기’,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다양한 악곡의 연주형태를 구별하며 듣기(협주)’,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듣기’는 7차 교과서

내의 국악 관련 학습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① 악곡의 이해와 감상

‘악곡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주제에 관한 교육과정 항목과 그에 따른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비교해보았다.

<표 20> ‘악곡의 이해와 감상’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감상하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제재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p>농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p>쾌지나 칭칭나네, 사물놀이,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흥보가</p>

7차 교과서에서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에 해당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 ‘긴·자진 형식’을 악곡의 성격으로 해석할 때 ‘농부가’ 제재곡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농부가’와 전라도 민요 ‘모심기소리(상사소리)’를 감상하며 ‘긴·자진 형식’을 이해하도록 제시된 활동을 들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에 해당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 ‘쾌지나 칭칭나네’의 ‘굿거리에서 자진 모리의 장단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노래의 느낌’에 관한 활동, ‘사물놀이’에서의 ‘장단의 변화를 이해’하는 활동,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장단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감상’하는 활동, 판소리 ‘흥보가’의 ‘내용과 장면에 따라 달라지는 장단의 빠르기를 파악하며 감상’하는 활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미하는 학습내용을 찾아본 결

과, 두 교과서 모두 교육과정을 최대한 포용하여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수록하였으나 두 교육과정의 항목이 내포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두 교과서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양한 시대의 음악 감상

다음으로 ‘다양한 시대의 음악 감상’에 관련된 국악부분 학습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표 21> ‘다양한 시대의 음악 감상’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기 • 우리나라 가곡, 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 연례악 등의 기악곡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학습내용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와 가야금산조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 ‘연례악’	창극 ‘홍보가’ vs 판소리 ‘홍보가’ ‘태산이 높다하되’ vs ‘국화 옆에서’ ‘시대와 음악-한국 전통 음악’ 고려속요 ‘상저가’ vs 경상도지역의 전래악곡 ‘방아타령’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우리나라 성악곡인 시조와 기악곡인 연례악을 감상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7차 교과서에는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와 ‘연례악’을 수록하였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감상을 위한 국악 관련 악곡으로는 전통 가야금 독주곡인 ‘가야금 산조’와 창작 가야금 독주곡인 ‘침향무’를 찾을 수 있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항목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 한국 전통 음악을 시대별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시한 ‘시대와 음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시대에 따른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는 학습내용으로는 ‘창극-흥보가’와 ‘판소리-흥보가’를 비교하여 감상하는 활동, ‘시조-태산이 높다하되’와 창작성악곡 ‘국화 옆에서’를 비교하여 감상하는 활동, 고려속요인 ‘상저가’와 경상도지역의 전래악곡인 ‘방아타령’을 비교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7차 교과서는 가야금 독주곡 한 장르인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대부분의 국악 관련 제재곡에서 다른 악곡과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③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다음으로,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항목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에서 바른 감상 태도에 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교과서 모두 음악회를 감상하는 바른 태도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표 22>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감 상 하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 습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감상 태도 갖기 <p>음악 에티켓-음악회장에서의 올바른 감상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p>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p>

공연 관람 태도에 대해 7차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부록 4>와 같이 ‘산촌’ 제재곡의 학습활동의 한 부분으로 페이지 내의 적은 지면을 활용하여 소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여러 장르의 공연에 대한 소개에 이어 <교과서 자료 5>와 같이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 음악회 관람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써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어 매우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록하였다. 또한 실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감상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수록하여 극음악에 대한 연계학습의 한 부분으로써 수록한 것을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활동영역에 대한 교과서 수록내용을 분석한 결과,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내용은 한 가지의 학습요소에 대해 다양한 예시악곡들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자료 4> 7차 교과서 p.51 바른 감상 태도




음악 예티켓

음악회장에서의 올바른 감상 태도

- 감상할 곡, 작곡자, 연주자, 연주단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
- 단정한 복장으로 음악회 시작하기 5분 전까지는 입장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는다.
- 음악회장에서는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 음악회 중에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다. 또, 자리를 옮겨 앉거나 출입하지 않는다.
- 곡의 중간에는 박수를 치지 않고, 곡이 끝난 후에는 아낌 없이 박수를 친다.
-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그 느낌을 적어 감상문으로 남긴다.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

1 음악회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음악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 둔다.

(준비 사항)

2 음악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바른 태도에는 ○표, 바르지 못한 태도에는 ×표를 해 보고, 이 밖에 지켜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 보자.

구분	올바른 감상 태도는?			
입장	시작 10분 전	○	시작 10분 후	×
좌석	빈 자리에 아무 데나 앉기	×	정해진 자리에 앉기	
태도	진지하게 조용히 감상		옆 사람과 큰 소리로 떠들며 감상	
박수	연주가 끝나고 힘차게		감동할 때 아무 때나	
의복	단정하고 깔끔하게		평상시대로 자유롭게	
촬영	연주회 도중 촬영은 금지		언제든지 촬영 가능	
간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휴대 전화	꺼 놓는다.		켜 놓는다.	

그 밖에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나 야외 음악회,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2) 이해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항목을 비교분석한 <표 8>에 근거하여 개정 전·후 교과서의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항목인 ‘리듬’, ‘장단’, ‘가락’, ‘형식’,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 등 7가지의 세부항목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항목은 총 8가지로 나누어지나, ‘화성’은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다루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의 ‘셈여림’과 ‘빠르기’항목은 ‘장단의 강세와 변화에 따른 악곡의 흐름’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본래 서양음악의 개념으로 국악 관련 학습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화성과 마찬가지로 분석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1) 리듬

이해영역의 ‘리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항목과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꼴’은 분리하여 ‘리듬’과 ‘장단’에 각각 배치하였음을 일러둔다.

<표 23> ‘리듬’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리 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6/4박자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제 재 곡	6/4박자-육칠 월 흐린 날	없음

위의 표에서 교육과정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박자를 지정해주었으며, 2007년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만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7차 교과서에서는 6/4박자로 채보된 ‘휘모리 잡가’를 찾아볼 수 있다. 휘모리잡가는 ‘그 장단이 축하고 급하여 휘몰아치는 듯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편의상 6/4박자로 채보한 악보일 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6/4박에서 요구하는 박자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선보로 채보된 악곡을 통해 6/4박자의 박자표에 대한 학습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박자로 민요 제재곡들의 박자를 예로 들 수 있으나 국악곡은 서양음악처럼 박자에 기준으로 하여 주요 리듬꼴이 반복되는 가락 진행이 아니므로 리듬에 관한 국악 제재곡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장단

이해영역의 ‘장단’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항목과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4> ‘장단’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여러 가지 장단의 리듬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단 (중모리, 변형장단, 장단 한배의 변화)
학습내용	5 · 8박 시조장단, 세마치장단과 변형장단,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 긋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과 변형장단	5 · 8박 시조장단 중모리장단과 변형장단,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긋거리장단, 긋거리 변형장단, 긋거리에서 자진모리장단으로의 변화, 세마치장단, 사물놀이, 창작국악 관현악곡 ‘신모듬’

‘장단’은 모든 국악곡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므로 두 교과서에서 국악 관련 악곡에 사용된 모든 장단과 장단에 관련된 학습내용을 모두 나열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을 모두 다루도록 제시됨에 따라 7차 교과서의 모든 악곡에서 장단에 관한 학습활동이 수록되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모리’와 그 ‘변형 장단’, 그리고 ‘장단 한배의 변화’에 대한 학습내용을 지정하여 제시함에 따라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강강술래’를 통해 중모리장단과 변형장단을 익히도록 하며 ‘가야금 산조’를 통해서 장단 한배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도록 수록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제재곡을 수록할 경우 특정 장단에만 한정될 수 없으므로 7차 교과서에서처럼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악곡과 장단이 다양하게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의 ‘사물놀이’의 다드래기-긴삼채-자진삼채-굿거리-덩덕궁이 장단으로의 변화와 창작국악 관현악곡 ‘신모듬’에 사용된 사물놀이 형식과 장단을 학습함으로써 민요와 산조의 반주 장단을 벗어나 장단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수록되었다.

(3) 가락

이해영역의 ‘가락’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항목과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였다. ‘가락’의 세부 항목 중, 제7차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조에 따른 가락의 구성’과 ‘라장조·나단조·마단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임시표를 포함하는 가락’ 등의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하고 국악에 해당하는 항목인 ‘민요 음계’와 ‘시김새’에 관해서만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5> ‘가락’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가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요 음계 • 시김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계(민요의 여러 조)
학 습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김새 ‘동창이 밝았느냐’ -민요음계 ‘각 지역별 우리나라 민요’ -제재곡 ‘아리랑, 농부가’ -취모리잡가 ‘육칠 월 흐린 날’ -국악창작곡 ‘산도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조음계 ‘태산이 높다하되’ -민요음계와 제재곡 ‘몽금포타령, 널리 리야, 강강술래, 쾌지나 칭칭나네’ -서양음악의 장음계·단음계와 한국 전통 음악의 여러 가지 음계의 차이

위와 같이 국악에 해당하는 가락의 세부 항목으로 민요의 음계에 관해서는 두 교과서 모두 우리나라 각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설명한 학습내용을 제시하였다.

7차 교과서는 민요 악곡과는 별개의 감상영역으로 ‘각 도별 우리나라 민요’를 수록하여 지역별 음계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민요 제재곡은 별도로 수록된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지역별 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에 이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다섯 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 지역 민요의 음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에서 나아가 직접 비교하여 불러보고 경험함으로써 지역별 민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민요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는 우리나라 음악적 표현의 특징인 ‘시김새’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제시하여 7차 교과서에도 ‘시김새’를 이해할 수 있는 ‘남도 민요-농부가’와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를 수록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시조’의 음계에 대한 학습을 제시하였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민요의 음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서양 음계와의 차이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4) 형식

이해영역의 ‘형식’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함에 있어 7차 교육과정의 항목인 ‘가락의 변화’, ‘소나타 형식’은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다루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은 국악 관련 학습내용으로 ‘각 지역별 우리나라 민요’를 비슷한 학습내용으로 볼 수 있었으나 ‘형식’으로써 두 교과서를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뒤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서양음악의 형식과 국악의 형식 모두를 다루었고 국악의 형식에 해당하는 ‘긴·자진 형식’을 제시한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양음악의 형식인 ‘AB형식’, ‘ABA형식’만을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이 7학년의 내용만 비교한 것임을 감안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8, 9학년 과정에는 ‘연음 형식’, ‘확대 형식’ 등 국악곡의 형식이 제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7학년 과정에만 국악의 형식에 관한 교육과정 항목이 제시되지 않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차 교과서에서는 ‘긴·자진 형식’에 관련된 국악관련 항목으로 ‘농부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국악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는 없는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해 두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몽금포타령’에 ‘메기고 받는 소리’가 제시되었고, ‘강강술래’와 ‘쾌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을 통해서도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제재곡 ‘쾌지나 칭칭나네’를 통해 ‘메기고 받는 소리’에 관해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에는 없는 민요의 형식을 다룬 점은 두 교과서의 공통점이나 ‘메

기고 받는 소리’의 설명은 2007년 개정 교과서보다 7차 교과서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민요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형식에 관한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6> ‘형식’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형식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긴·자진 형식	• AB형식, ABA형식
제재곡	농부가	국악 관련 내용 없음
	메기고 받는 소리-‘쾌지나 칭칭나네’	메기고 받는 소리-‘몽금포타령, 강강술래, 쾌지나 칭칭나네’

(5) 음색

제7차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음색’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음역에 따른 목소리’는 서양 합창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비교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협주)’항목에서 ‘협주’는 서양음악적인 개념이지만 창작 국악관현악의 경우 ‘협주’의 형식으로 작곡된 곡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비교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두 교과서의 음색에 관련된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7> ‘음색’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음원의 크기/모양/재료에 의한 소리 변화 • 여러 가지 악기 소리의 조화 •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
학 습 내 용	-장구, 단소, 소금 -사물놀이 -전통 국악기 -전통 기악곡 -연례악의 악기편성 -판소리·시조 등의 악곡의 성격에 따른 분위기와 목소리의 음색의 관계	-이성천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단소 -사물놀이와 난타 -한국 전통 악기 -창작국악관현악곡 ‘신모듬’

위의 표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음색에 대한 항목을 학습하고자 할 때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내용과 국악기의 종류, 학습활동 중에 해당 가능한 내용들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악곡의 성격에 따른 음색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으므로 제재곡 또한 포함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으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한 교육과정 항목에 따라 교육과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으로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을 수록하였으나, 폭넓게는 국악에 대해 이해하고 국악기의 특성과 음색을 학습할 수 있는 여러 학습내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은 학습목표에서도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듯, 한국 전통 악기의 종류와 음색을 국악관현악곡을 통해 알고, 서양 악기와 비교하며 아름다움을 느껴보도록 수록된 학습내용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종합적으로 음색을 이해해야 하는 7차 교과서와는

달리 국악관현악곡을 감상하면서 국악기의 특성과 음색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한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게 정확하게 제시된 한 가지 활동을 통해 국악기의 음색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서양악기와 비교도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6) 악곡의 특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악곡의 특징’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여러 악곡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7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시조’, ‘판소리’, ‘창극’, ‘오페라’, ‘뮤지컬’ 등 성악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는 악곡의 특징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곡의 특징 항목과 일치하는 제재곡을 찾아보았다. ‘악곡의 특징’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제재곡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8> ‘악곡의 특징’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악곡의 특징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 판소리, 창극, 오페라, 뮤지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 판소리, 창극, 오페라, 뮤지컬 등
제재곡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판소리 ‘비단타령’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판소리 ‘홍보가’ 창극 ‘홍보가’

‘오페라’, ‘뮤지컬’ 등 서양음악의 성악곡을 제외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국악 관련 성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시조’, ‘판소리’에 대해 수록되었고,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조’, ‘판소리’, ‘창극’

등이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판소리의 경우, 두 교과서 모두 ‘홍보가’에 대해 수록하였는데 7차 교과서는 ‘홍보가’ 중 한 대목인 ‘비단타령’을 제재곡으로 제시하여 ‘가창’활동으로써 제시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홍보가’의 한 대목인 ‘돈타령’을 감상활동으로써 제시하여 판소리를 부르기보다는 판소리에 대한 가치와 특징을 이해하고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판소리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창극’의 요소를 대입하여 같은 내용의 ‘홍보가’이지만 ‘판소리’와 ‘창극’이라는 장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둠별로 ‘창극-홍보가’의 한 장면을 선정하여 간단한 창극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는 ‘창작’의 요소가 포함된 활동으로써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창극’은 교육과정에 의함이기도 하지만 판소리 ‘홍보가’와 같은 내용의 창극 ‘홍보가’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국악에 좀 더 대중적인 접근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판소리의 어려운 음악적 표현법 때문에 배우고 따라 부르는 활동이 어려워 자칫 제재곡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는 ‘7차 교과서의 단순한 가창 활동’에서 벗어나 ‘판소리’의 특징은 감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학습하되 자율적으로 장면을 선정하여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판소리’를 학습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시도’가 참신하다.

(7) 악곡의 종류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악곡의 종류’에서 7학년 과정에는 다양한 성악곡과 기악곡을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7차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중 ‘형식’에 제시된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과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이 '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예술 가곡, 아리아 등의 외국 성악곡'과 '소나타, 푸가 등의 외국 기악곡'은 서양음악에 해당하므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두 교과서에서 '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① 성악곡의 종류

두 교과서에서 '성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악제재곡들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9> '성악곡의 종류' 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악곡의 종류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조·가곡·단가·판소리 등의 우리나라 성악곡
제재곡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판소리 '홍보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악 관련 성악곡으로 '시조'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판소리'를 선수하였음을 전제로 조직된 교육과정에 의해 7학년 과정에서는 '시조'를 학습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7차 교과서에는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를 수록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이 재조직됨에 따라 7학년 과정에는 '시조, 가곡, 단가, 판소리' 등의 국악 성악곡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시조'에 '태산이 높다하되'와 '판소리'에 '홍보

가’ 등의 두 가지 장르의 악곡이 수록되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정악에 속하는 시조와 가곡 중 시조를 수록하고, 민속악에 속하는 단가와 판소리 중 판소리를 수록하였는데 비교적 덜 어려운 시조와 많이 알려진 판소리를 수록한 것은 학습활동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나, 가곡과 단가 모두 수록되었다면 교육 현장에서 더욱 풍성한 국악 학습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② 기악곡의 종류

다음으로 두 교과서에서 ‘기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0> ‘기악곡의 종류’ 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악곡의 종류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연례악-수제천,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조·시나위 등의 우리나라 기악곡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7차 교육과정은 국악 관련 학습내용으로 ‘연례악’을 제시함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연례악’을 감상활동으로 수록하며 ‘연례악’의 종류로 ‘수제천’,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 등 4가지 악곡에 대해 감상하고 학습하도록 수록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 ‘산조’, ‘시나위’ 등의 기악곡을 제시함에 따라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수

록하였다.

‘악곡의 종류’에 대해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교육과정 항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기악곡의 경우 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악곡이 다르므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을 비교할 수는 없었다.

또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기악곡’에서 ‘시나위’에 관해 다루지 않았고 ‘성악곡’에서는 ‘단가’와 ‘가곡’을 수록하지 않았으므로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생활화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개정 전·후 교육과정 ‘생활화’영역의 항목을 비교한 <표 9>에 근거하여 ‘음악 바르게 즐기기’와 ‘음악 경험하기’, ‘음악과 생활’이라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활화’영역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주제별로 비교해보았다.

(1) 음악 바르게 즐기기

‘음악 바르게 즐기기’라는 주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내의 활동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다.

‘음악 바르게 즐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7차 교과서는 ‘바른 감상 태도’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는데, ‘바른 감상 태도’에 관련하여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음악회장에서의 올바른 감상 태도’에 대해서는 ‘감상하기’영역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음악 바르게 즐기기’에 해당하는 국악관련 학습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1> ‘음악 바르게 즐기기’ 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생활 활 화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바른 감상태도 갖기	•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 습 내 용	음악 에티켓-음악회장에서의 올바른 감상 태도	-인터넷 활용하여 우리 문화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
		사물놀이, 난타, 판소리, 정간보, 한국 전통 악기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우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사물놀이’, ‘난타’, ‘판소리’, ‘정간보’, ‘한국 전통 악기’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물놀이’와 ‘판소리’, ‘정간보’, ‘한국 전통 악기’에 대해서는 7차 교과서에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정간보’와 ‘한국 전통 악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함에 있어 우리 전통 문화가 갖는 고유성과 특수성, 과학적이면서도 훌륭한 가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

‘정간보’에 관해 두 교과서에서 모두 단소 연주와 관련하여 제시하였는데 7차 교과서에서는 ‘정간보’의 유래와 가치에 대해 <교과서 자료 6>과 같이 4컷 만화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라는 ‘정간보’만의 가치가 설명되어 있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구성이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정간보’는 단소를 배우는 과정에서 함께 익히도록 제시되었는데, 단소 연주를 위한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잘 제시되어 있으나 정작 ‘정간보’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 ‘정간보’의 정의에 대해 몇 줄의 설명을 통해서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정작 ‘정간보’의 중요성과 가치 등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단소’ 학습내용의 일부분인 <교과서 자료 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교과서 자료 6> 7차 교과서 p.17 아리랑-정간보



<교과서 자료 7> 2007년 개정 교과서 p.47 단소-정간보

정간보
 세종 대왕이 만든 악보로, '우물 정(井)' 자 모양의 1칸을 1박으로 하여 그 안에 율명을 적어 음높이와 음길이를 나타낸다.

'정간보'와는 반대로 '사물놀이'와 '판소리'는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더 효과적으로 제시되었다. 7차 교과서에 제시된 '사물놀이'와 '판소리'는 이해활동이 단순한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7차 교과서의 '사물놀이'는 '패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으로 네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장구 장단을 연주할 뿐 진정한 '사물놀이'의 장단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사물놀이'에 관한 자세한 학습활동은 물론, '세계 속의 우리 음악'이란 주제로 '사물놀이'와 '난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전통 타악 합주인 '사물놀이'와 퓨전 타악 합주인 '난타'를 통해 세계 속의 우리음악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해

부각시키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판소리’에 대해 2003년 유네스코에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임을 알리며 제재곡 ‘홍보가’ 이외의 판소리 다섯 마당에 대해 조사해보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간보’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4컷 만화를 활용한 7차 교과서에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사물놀이’와 ‘판소리’에 관해서는 비교학습과 연계학습을 활용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더욱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음악 경험하기

다음으로 ‘음악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음악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발표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표 32> ‘음악 경험하기’ 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생 활 화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학 습 내 용	•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 학교 내외의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음악회 감상하고 감상문 발표하기	-공연 관람 후 감상문 작성하기
		-창극-홍보가 발표하기
		-컴퓨터로 만든 음악 발표하기
		-학급 음악회

위의 표를 보면 7차 교과서의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에 해당하는 활동은 음악회를 감상하고 감상문을 써서 발표하는 활동으로 7차 교과서의 ‘산촌’ 제재곡에 제시된 학습활동이다. 음악회를 감상하며 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작성해보는 활동은 음악을 듣고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음악을 바

른 태도로 듣게 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기’에 관해 음악회나 공연장을 찾아 감상하고 감상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와 연계되는 활동으로, 음악회에 대한 태도를 배운 후 바른 태도로 음악회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작성하는, 매우 적극적으로 생활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활동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서도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창극- 홍보가’를 감상하고 한 장면을 선정하여 모둠별로 직접 창극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활동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활동, 그리고 ‘학급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수록한 학습활동 등이다.

음악 교과서의 모든 음악적 개념 습득과 음악 활동은 궁극적으로 음악을 생활에서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혼자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운 음악을 표현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학급 음악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발표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민과 연습이 필요하며 완전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의 마지막 활동으로 ‘학급음악회’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 해당 교육과정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나 7차 교과서에서의 공연 감상에 한정된 ‘음악 경험하기’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공연 감상은 물론, 스스로 음악을 창작하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음악 경험하기’활동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음악과 생활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생활화’항목이기도 하며 가장 쉽게 생활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을 ‘음악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비교해 보았다.

<표 33> ‘음악과 생활’ 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생 활 화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 (의식과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학 습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부가, 성주풀이, 연례악 인터넷에서 음악에 관련된 정보 검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 컴퓨터로 만든 음악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조, 문묘제례악, 상저가

위의 표에 의하면 7차 교과서의 ‘음악과 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농부가’, ‘성주풀이’, ‘연례악’, ‘인터넷 활용하여 음악 관련 정보 검색하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2007년 교과서에는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와 ‘컴퓨터 음악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조’, ‘문묘제례악’, ‘상저가’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두 교과서에서 ‘음악과 생활’에 관련된 세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 중 하나인 ‘노동요’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7차 교과서의 ‘농부가’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상저가’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의 효과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농부가’는 ‘모심기소리(상사소리)’와 비교하도록 하고, ‘상저가’는 경상도 지역의 ‘방아타령’과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비교학습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 교과서의 ‘상저가’는 고려 속요로써 ‘상저가’와 경상도 지역의 ‘방아 타령’을 비교함으로써 ‘노동요’에 대한 비교에서 나아가 시대에 따른 비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궁중음악에 대해 제시한 점으로 7차 교과서에는 ‘연례악’의 종류인 ‘수제천’과,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에 대해 감상하도록 제시하였고,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시대별 음악 감상으로 ‘문묘제례악’과 ‘여민락’을 찾아볼 수 있었다. ‘노동요’가 옛 서민들의 생활 속의 음악이었다면 ‘궁중음악’은 우리나라 왕족들의 생활 속의 음악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셋째,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이다. 7차 교과서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음악적 이론이나 개념 등에 대해 조사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은 물론, 감상도 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만든 음악을 발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7차 교과서에는 없지만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가 있다. 개인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모습,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거나 연습하고 발표하는 모습, 가정에서 음악이 사용된 예나 가족끼리 연주하는 모습, 사회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 등 다양한 사진들을 제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음을 이해시킬 수 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공연이나 하고 싶은 음악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사진을 보고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 가능한 활동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항목인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의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두 교과서에서 ‘생활화’ 활동으로써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은 비슷했으나 교육과정이 자세해지고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다양해졌음에 따른 정도와 활동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5. 교과서 대표 제재곡 수록내용 비교

지금까지 교육과정 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학습활동과 제재곡에 관해서 비교해보았다.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교육과정을 배제한 연구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에 맞춘 비교 분석에는 신·구 교과서의 차이점과 개선점 등을 자세히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장르 중 평시조와 민요악곡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두 교과서의 장르는 평시조, 민요 이외에도 판소리, 국악창작곡, 휘모리잡가, 고려속요, 사물놀이, 단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공통 장르 중에서도 평시조와 민요를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음악교과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인 동시에 학습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활동이 가창이므로 국악제재곡 중 대표적인 가창활동인 평시조와 민요를 선택하였다.

둘째, 판소리·국악창작곡·휘모리잡가·고려속요 등도 가창제재곡이지만 두 교과서의 악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악곡이 같거나 학습활동의 내용이 비슷해야 하므로 두 교과서에 모두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평시조와 민요를 선택하였다.

평시조와 민요 이외에 7차 교과서의 휘모리잡가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고려속요는 장르와 악곡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 하며, 판소리·국악창작곡·사물놀이·단소 등의 학습활동은 앞서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비교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국악 학습에 가장 대표적인 학습요소이면서 두 교과서간에 수록된 악곡과 학습활동이 가장 근접한 평시조와 민요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1) 평시조

‘평시조’는 두 교과서 모두 각각 한 곡씩 수록되었는데 7차 교과서에는 ‘동창이 밝았느냐’가 수록되었고,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태산이 높다하되’가 수록되어 악곡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평시조의 악곡이 ‘동창이 밝았느냐’에서 ‘태산이 높다하되’로 바뀌었으나 동일한 가락에 가사만을 달리 엮어 부르는 특성을 지닌 시조이기에 두 제재곡의 비교가 가능하다.

제재곡의 학습활동이 구성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1) 학습목표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①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알고 ②시조의 독특한 시김새를 이해하고 ③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로 분리되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①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②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로 분리된다.

두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4> 평시조 학습목표 비교

교과서	학습목표
7차 교과서	1. 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안다. 2. 시조의 독특한 시김새를 이해하고 장구장단에 맞추어 '동창이 밝았느냐'를 듣고 불러본다.
2007년 개정 교과서	1.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시조의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른다.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보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조의 독특한 시김새라는 것이 시조

의 음악적 특징이므로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중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7차 교과서의 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은 장구장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장구 또는 장단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5·8박으로 구성된 시조의 독특한 장단 또한 시조의 음악적 특징에 해당되므로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모두 통합하여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학습활동

위와 같은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두 교과서는 각각 4가지의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학습활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배열의 순서에 차이는 있으나 4가지가 모두 같은 동일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시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는 활동이며, 둘째로 5박과 8박의 시조장단을 익히는 학습활동이다. 셋째로 시조의 시김새를 알고 불러보는 활동이며, 넷째로 악보를 보고 시조를 불러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조에 대해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되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활동을 재구성하였으므로 두 교과서가 다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보았다.

두 교과서의 평시조의 학습활동을 정리하여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5> 평시조 학습활동 비교

교과서	학습목표
7차 교과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자. 2. 정간보로 기보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사의 의미를 새겨 보고, 노래 불러 보자. 3.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에 사용된 계면조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리고 전문가가 부르는 것을 들어보고, 장식음인 요성과 퇴성의 시김새를 따라 불러 보자. 4. 5박과 8박 장단을 익히고, 장구 반주에 맞추어 노래해 보자.
2007년 개정 교과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를 운율에 맞추어 큰 소리로 읊어 보고, 시조의 형식과 의미를 알아보자. 2. 시조의 5박과 8박 장단을 구음을 넣어가며 무릎장단이나 장구로 익혀 보자. 3. 시조의 구성음을 알아보고, 시김새를 살려 정확한 음정으로 불러보자. 4.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며 명창이 부르는 ‘태산이 높다 하되’를 종장까지 감상하고, 무릎장단이나 장구 장단을 치며 초장을 듣고 따라 불러보자.

(3) 학습활동 구성 순서

위와 같이 같은 내용의 학습활동일지라도 두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을 제시한 순서는 확연히 달랐다.

두 교과서 모두 시조의 특징과 이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첫 번째 학습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외의 활동에 관한 학습활동 순서에 있어서 7차 교과서는 첫 번째 이론적 배경 이후, 바로 정간보를 보고 노래 부르는 활동이 제시된 것은 무리한 구성이라고 보여진다. 비록 7차 교과서에서 평시조 학습 이전에 아리랑 체재곡을 통해 정간보에 관해 선수되었다고는 하나 시조의 장단(박자)와 음계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간보를 보

고 노래한다는 것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학습활동인 것이다. ‘적은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간보를 먼저 수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더라도 정간보와 함께 학습활동에서 가창의 내용이 제시되었으므로 적은 지면의 활용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 순서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걷기도 전에 뛰는 것부터 요구하는 것과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첫 번째 이론적 배경에 관한 학습활동 다음으로 5박과 8박의 시조장단을 학습하게 하여 제재곡의 바탕이 되는 박자를 먼저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재곡을 부르기 위해 필요한 제재곡에 사용된 구성음과 표현법을 학습하도록 제시하였다. 이처럼 장단과 구성음 및 시김새를 학습한 다음에야 제재곡을 감상하고 제시된 악보를 보며 노래 부르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 순서는 이론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제재곡에 접근하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학습활동이라 하겠다.

(4) 학습활동 구성 방식 비교

위에서 두 교과서의 평시조는 같은 내용의 학습활동을 서로 다른 순서로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학습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5박과 8박의 시조 장단을 익히는 활동과, 평시조의 음계와 시김새를 익히는 활동에서는 두 교과서에 사용된 악보나 개념정리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설명한 글과 수록된 악보에 있어서는 두 교과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시조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내용의 차이

7차 교과서는 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자는 학습활동에 맞춰 다음과 같은 설명을 수록하였다.

시조는 3장 형식의 시조시를 계면조 음계로 된 가락으로 5박과 8박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성악곡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그 밖의 지역에서 불리는 '향제'로 나뉘는데, 향제에는 완제(전라도), 영제(경상도), 내포제(충청도) 등이 있다. 또 음악적 특징에 따라 경제에는 '평시조', '중허리시조', '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수잡가', '휘모리잡가' 등의 변화곡이 있고, 향제에는 '평시조'와 '사설시조' 등이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습하기에 시조의 종류는 너무도 막연하고 어려운 주제이다. 이러한 내용을 외운다고 시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각 지역의 시조를 구별하여 감상하며 학습하는 활동도 아닌데 시조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자는 학습활동 자체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시조에 관해 '3장 형식의 시조시를 계면조 음계로 된 가락으로 5박과 8박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성악곡'으로 정의한 7차 교과서와 달리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학습활동에 앞서 시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시조는 고려 말에 나타난 3장 형식의 짧은 시로, 대엽(현행 가곡의 원형)조의 가락에 얹어 노래되었으며, 현재의 시조창과 같은 형태로 불린 것은 조선 영조 무렵부터이다. 장단은 5박과 8박 장단을 섞어서 사용하며, 음계는 황종(黃鐘)·중려(仲呂)·임종(林鐘)의 3음을 주로 사용한다.

위와 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시조에 관한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시조의

유래와 변천, 음악적 특징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어렵게 설명되지도 않았으며 사용된 음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위와 같은 시조에 관한 설명 다음으로 첫 번째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첫 번째 학습활동은 제재곡의 바탕이 된 3장 형식의 시조시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으로, 산을 오르는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시조를 읽어봄으로써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시조시의 3장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조시를 읽는 활동은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있는데 두 번째 학습활동을 통해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초·중·종장의 가사를 적어놓은 정간보를 수록하여 악보와 가사의 구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시조의 형식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시조의 3장 형식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돕기에는 다소 무리한 악보 수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수록 악보의 차이

평시조 학습을 위해 수록된 악보를 비교하면 두 교과서의 제재곡 학습을 위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7차 교과서는 기존의 국악 전통악보인 정간보를 가사와 함께 3장까지 모두 수록하였는데, 7차 교과서의 시조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정간보의 기존 원칙을 바꾸어 학습자가 보기 수월하도록 가로로 된 정간보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본래 독보가 수월하지만은 않은 정간보의 특성상 학습자가 보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간보를 가로로 놓히는 방법 외의 더 나은 법을 찾지 못했던 듯하다.

위와 같은 정간보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시조악보이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서양의 오선보도 아닌, 기존의 정간보도 아닌

새로운 악보를 선보였다. 3음 구성인 시조의 음체계를 활용하여 정간보처럼 비슷한 모양이되 한자로 음을 표시한 것이 아닌, 선으로써 음의 높낮이를 표현한 것이다. 가로로 놓힌 정간보 네모칸 안에 가사와 선을 연결하여 요성과 퇴성 등의 시김새까지도 표현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3개의 시조 구성음만 확실히 익힌다면 선을 따라가면서 쉽게 시조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간단해 보이는 이 악보는 기존의 정간보의 어려움을 극복한 실로 획기적인 악보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7차 교과서에 수록된 평시조 정간보와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평시조 그림악보이다.

<교과서 자료 8> 7차 교과서 p.38 평시조-정간보

2. 정간보로 기보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사의 의미를 새겨 보고, 노래 불러 보자.

정중하게 ◦ 남구만 작사 ◦ 최현 편곡

[초장]

仲仲-	仲黃-	黃仲-	仲
동창--	이--	밝았--	느냐

仲仲-	--黃	黃	林黃-
노고-	---	지	리--

黃仲-	仲黃-	仲	△
우지-	진--	다	

[중장]

仲-林	仲仲-	仲仲-	林黃- 黃仲-	仲
소--	치는-	아희-	놈--	은

仲	仲黃-	黃仲-	仲	黃仲-
일	었--	느냐	나	아니-

仲	仲黃△	仲	備黃△
일	었--	느냐	---

[중장]

林-仲	黃仲-	仲	仲仲-	黃仲--	黃	林黃-
재--	너--	미	사래-	긴--	말	을--

黃仲-	仲	備黃△	備太
언제-	갈	려-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며 명창이 부르는 '태산이 높다 하되'를 종장까지 감상하고, 무릎장단이나 장구 장단을 치며 초장을 듣고 따라 불러 보자.

③ 비교학습 구성의 차이

4가지 학습활동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비교학습에서도 두 교과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차 교과서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시조와 비교해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시조를 학습하고 시조와 같은 다른 전통 성악곡의 종류를 학습하고 시조와 비교한다는 학습활동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수록된 ‘전통 음악의 종류 1-〈성악곡〉’은 적은 지면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전통 성악곡을 간단한 정의만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비교학습으로써 교과서에 수록된 서양 제재곡인 ‘에델바이스’와 ‘태산이 높다하되’를 불러보고 서양 성악곡과 한국 전통 성악곡을 비교해 보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은 서양악곡과 국악곡의 효과적인 비교는 물론, 교과서 내의 제재곡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악곡을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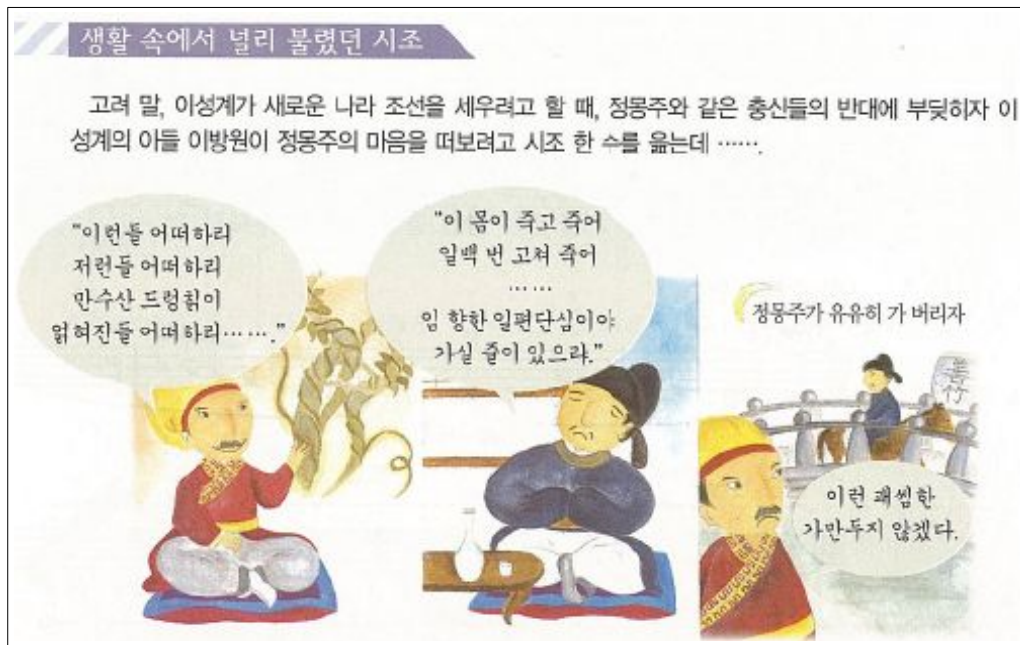
④ 만화를 이용한 이해

마지막으로 7차 교과서의 평시조 학습내용에는 없는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평시조 학습내용만의 특징인 만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평시조에 수록된 만화는 앞서 글로써 설명했던 시조의 유래와 그와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시조가 활용되었던 예를 다음과 같은 만화를 통해 한 번 더 제시함으로써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평시조에 수록된 만화이다.

<교과서 자료 10> 2007년 개정 교과서 p.13 평시조-만화



결론적으로 평시조라는 동일한 장르의 악곡을 두 교과서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제시하였으나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학습활동의 순서 및 학습활동 구성 방식에 있어 효과적인 수업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2) 민요

7차 교과서에는 민요악곡이 아리랑, 농부가, 쾌지나 칭칭나네, 신고산타령, 성주풀이, 풍구소리 등 6곡이 수록되었고,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몽금포타령, 널리리야, 강강술래, 쾌지나 칭칭나네, 오돌또기, 도라지타령 등 6곡으로 두 교과서의 민요 악곡 수는 동일하게 수록되었다. 그러나 7차 교과서의 풍구소리는 참고악곡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도라지타령은 단소 학습을 위한 제재곡으로 수록되었으므로 순수 가창을 위한 제재곡은 두 교과서 모두 5곡으로 동일하다. 지역별로 보면 7차 교과서는 경기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의 구성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경기민요, 남도민요, 경상도민요, 서도(황해도)민요, 제주도민요의 구성이다. 7차 교과서에는 제외된 서도민요와 제주도민요가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수록되었으며, 같은 서도민요 중에 7차 교과서에는 함경도민요인 ‘신고산타령’이 수록되었으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황해도민요인 ‘몽금포타령’이 수록되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6> 교과서 수록 민요 지역별 비교

지역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경기민요	아리랑	널리리야
남도민요	농부가	강강술래
서도민요		몽금포타령(황해도)
동부민요	신고산타령(함경도), 성주풀이(경상도), 쾌지나 칭칭나네(경상도),	쾌지나 칭칭나네(경상도)
제주도민요		오돌또기
기타	참고악곡-풍구소리	단소연주-도라지타령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7차 교과서의 참고악곡 ‘풍구소리’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단소연주악곡 ‘도라지타령’은 가창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순수 가창을 위해 수록된 곡들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1) 악곡 수록 방식의 차이

두 교과서는 민요라는 장르의 악곡들을 수록한 방식에서 두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교과서 내의 수록 악곡들의 연계성에서의 차이이다.

7차 교과서는 아리랑(p.16-17), 농부가(p.26-27), 꿩지나 칭칭나네(p.44-45), 신고산 타령(p.60-61), 성주풀이(p.70-71) 등의 5곡의 민요 악곡들이 순서적으로 함께 수록되지 않고 서양악곡 사이사이에 하나의 가창악곡으로써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 관련 이해활동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제재 곡과는 별개로 각 지역별 민요의 특징(p.28-29)을 감상활동으로써 제시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각 지방의 민요의 특징에 대한 이해(p.20)와 함께 몽금포타령(p.21), 널리리야(p.22), 강강술래(p.23), 꿩지나 칭칭나네(p.24), 오돌또기(p.25) 등의 악곡을 차례대로 수록하였다.

7차 교과서의 악곡과 활동은 제재곡별로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그에 따른 학습활동에 이어 마지막으로 심화 또는 비교 학습으로 제재곡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면에 하나의 통합된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각 민요에는 학습목표 없이 학습활동만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 민요 제재곡인 오돌또기의 학습활동에 이어 전체 민요에 대한 통합적인 수행평가와 비교학습이 제시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5곡의 악곡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수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각 지방 민요의 특징과 함께 지역별 대표 민요 5곡을 수록한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민요의 특징을 학습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제시된 대표 민요악곡을 학습함으로써 민요의 특징을 제재곡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7차 교과서는 교과서 내에 수록된 민요들 사이에 어떠한 연계성도 고려되지 않고 수록된 것으로 보이며, 민요의 특징은 감상활동을 통해서 별도로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 민요라는 장르와 각 지역별 민요의 특징에 대한 학습의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제재곡 및 학습활동을 수록한 페이지 수와 내용 구성의 차이이다.

7차 교과서는 감상활동인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악곡이 두 페이지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모든 내용이 한 페이지에만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단순히 교과서 내에서 민요악곡이 차지하는 분량으로 보았을 때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 7차 교과서의 민요에 대한 내용과 학습활동이 더욱 자세하게 수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두 교과서의 악곡과 학습활동을 비교해 본 결과 두 페이지를 사용한 7차 교과서의 제재곡의 학습활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제재곡의 학습활동에 비해 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7차 교과서의 제재곡과 함께 ‘이해’활동으로써 제시된 학습내용들이 제재곡이 수록된 지면을 함께 활용하고 있을 뿐 제재곡과는 무관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이며, 같은 학습내용들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제재곡과는 별도의 학습내용으로 사진자료와 함께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교과서는 제재곡과 학습활동을 수록하는데 있어서 교과서의 지면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민요의 학습내용 구성 방식의 차이점은 두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 대한 학습내용의 차이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자 한다.

(2)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 대한 학습내용의 차이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 대한 학습내용으로는 민요에 대한 정의와 함께 우리나라를 5도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징을 감상과 함께 이해하도록 제시한 학습내용과, 제재곡으로 수록된 민요악곡과 그에 따른 학습활동들을 들 수 있다. 먼저 두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민요의 특징에 대해 수록한 학습내용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①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

두 교과서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각 지역의 민요를 감상을 통해 알아보고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민요에 대한 정의도 구전된다는 점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7차 교과서에는 지역별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비롯하여 노동요, 3박자 계통, 5음 음계, 꾸밈이 많은 가락, 메기고 받는 소리 등을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특징과 ‘토리’라는 개념,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교과서 모두 우리나라 지도를 사용하여 서도, 경기, 남도, 동부, 제주도 등의 5개 지역으로 나누고 경기도, 함경도, 강원도, 등의 지역들이 5개의 어느 민요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였다.

각 지역의 특징 설명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드러운 감정표현과 서정적이며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 경기민요에 대한 설명은 두 교과서 모두 동일하지만, 다른 지역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한스럽고 애수어린 노래가 많다는 서도민요의 특징과 특유의 사투리가 느껴진다는 제주도민요의 특징처럼 동일한 내용도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조

금씩 달리 설명하고 있다.

또한 7차 교과서에는 5도권에 따른 구별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지도에 나타나 있는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등의 각 지역의 대표민요들을 3곡 또는 4곡씩 제시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민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교사는 제시된 곡들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감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에 이어 5도권의 대표민요들을 한 곡씩만 수록하였으므로 5곡의 민요 외에 더 많은 민요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의 표는 두 교과서에서 각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 37> 각 지역 민요의 특징

지역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서도 민요	콧소리를 섞어 떨기도 하며, 한스럽고 애수어린 노래가 많다.	음계의 가운데 음을 굵게 떠는 소리가 특징이며, 한스럽고 애수어린 노래가 많다.
경기 민요	감정 표현이 부드럽고, 가락이 서정적이며 경쾌하다.	가락이 서정적이며 경쾌하고, 감정표현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남도 민요	목을 눌러 소리내며, 억양이 강하고 구성지다. 표현이 풍부해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억양이 강하고 구성지며,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가 특징이다.
동부 민요	강원도 민요는 주로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가락이 진행되며, 순박하고 구수하다. 함경도 민요는 대체로 강원도 민요와 비슷하며, 촉박한 리듬이 특징이다. 경상도 민요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다.	함경도나 강원도 민요는 탄식이나 애원조의 노래가 많고, 경상도 민요는 깨끗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제주도 민요	어업과 관련된 일노래가 많으며, 제주도 특유의 사투리가 느껴진다.	제주도 특유의 사투리를 표현하는 소박한 가락이 특징이며, 애잔하고 담담한 느낌의 노래가 많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민요의 음계를 수록한 것에 대한 차이점인데, 7차 교과서는 각 지역 민요에 사용되는 음계를 각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여 각 지역의 음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며, 모두 동일한 다장조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지역별 민요에 출현하는 음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작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은 다장조가 아니므로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별도의 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7차 교과서와는 반대로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각 지역의 음계에 대한 설명이 민요의 특징과 함께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대표민요로 수록된 제재곡의 학습활동을 통해 제재곡과 같은 조를 사용하여 제시되었으므로 제재곡과 사용 음계에 대한 학습 효과는 높을 수 있으나 각 지역의 음계를 비교하여 한 눈에 알아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이 민요의 음계를 수록함에 있어서 두 교과서의 차이점은 학습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민요의 특징을 지역별 대표악곡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으므로 학습활동에 각 지역의 음계가 함께 제시된 반면, 7차 교과서는 이미 민요의 특징에 대한 부분에서 음계에 대해 수록하였으므로 각 제재곡의 학습활동에서는 음계에 관해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으로 각 지역의 민요에 대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전 악곡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민요의 특징과 음계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것이며, 경상도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를 제외하고는 두 교과서에 수록된 지역별 대표민요가 다르므로 학습활동을 통해 각 제재곡만의 특성으로써 제시된 내용에 한해서만 분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활동의 기반이 된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각 지역의 대표민요가 수록된 순서인 경기-남도-동부민요의 순서로 비교해보았다. 단 7차 교과서에는 서도민요와

제주도민요가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서도민요와 제주도민요에 대한 비교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③ 경기민요

경기민요의 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세마치장단’의 ‘아리랑’이 수록되었고,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굿거리장단’의 ‘널리리야’가 수록되었다.

㉠ 난이도

경기민요는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악곡들이 대부분이며, 7차 교과서의 아리랑과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널리리야는 두곡 모두 널리 알려진 민요이므로 학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7차 교과서의 아리랑은 정간보로 된 악보를 읽고 단소를 연주하는 활동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알려지고 쉬운 민요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래 부르기에는 이미 알고 있어 더없이 쉬운 제재곡이다.

널리리야 또한 널리 알려진 민요이므로 노래 부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나, 잔가락들의 표현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 학습활동

7차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아리랑의 학습활동은 정간보를 보고 노래 부르는 활동과, 세마치장단을 익히고 장구와 단소반주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널리리야의 학습활동은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몸동작과 함께 흥겹게 표현하는 활동과 굿거리의 변형장단을 만들어 변형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기본 장단과의 차이를 느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㉔ 7차 교과서 제재곡의 특징

7차 교과서의 제재곡인 아리랑은 아리랑의 학습목표와 제재곡 뒤를 이은 내용으로 장구, 단소, 소금 등의 연주법이 제시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노래 부르는 활동과 단소를 연주하는 활동을 통합하여 수록한 제재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악보도 정간보로 수록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간보’에 대한 이해와 ‘울명과 음계’에 대한 이해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단소 연주법에 대해 민요제재곡과는 별도로 기악 활동으로 분리하여 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정간보에 대한 학습내용은 기악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7차 교과서의 제재곡인 아리랑이 정간보로 수록되었으므로 제재곡을 노래 부르기 위해서도 정간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7차 교과서의 아리랑은 교과서의 국악 제재곡 중 첫 곡으로써, 장단 중에서도 처음으로 제시된 ‘세마치장단’에 대한 학습활동도 제시하였는데 7차 교과서의 평시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장단을 학습하기 이전에 이미 노래를 부르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㉕ 2007년 개정 교과서 제재곡의 특징

앞서 7차 교과서에서 세마치장단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널리리야는, 앞서 서도민요로 수록된 몽금포타령과 같은 굿거리장단이므로 장단에 대한 새로운 학습대신 굿거리장단을 변형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비록 가락이 아닌 장단에 의한 변형이긴 하나, 이 또한 일종의 창작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는 하나의 굿거리변형장단이 ‘예’로써 제시되어 있고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변형장단을 만들어 기본 장단과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는 활동은 굿거리장단에 대한 심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㉔ 신체표현

두 교과서의 경기민요에 대한 학습활동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신체표현에 대한 활동이다.

7차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아리랑에서는 장구와 단소 반주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였고,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널리리야에서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몸동작과 함께 흥겹게 표현해보자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어깨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몸동작, 이처럼 사용한 단어는 다르지만 두 교과서 모두 경기민요의 학습활동으로써 신체표현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부드러운 감정표현과 서정적이며 경쾌한 가락을 특징으로 지닌 경기민요의 특징을 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창작과 표현을 아우르는 학습활동이 될 것이지만, 학습자들이 어깨춤, 몸동작 등의 단어만으로 민요를 몸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제시’라고 판단되며 신체표현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예 또는 설명이 함께 제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될 것이다.

④ 남도민요

남도민요 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농부가’를 수록하였고,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강강술래’를 수록하였는데, 남도민요 자체가 시김새와 요성표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악곡이므로 두 곡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㉕ 학습활동

두 교과서 모두 남도민요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인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 등의 시김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남도민요의 특징을 잘 살려서 노래 부르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7차 교과서의 경우는

민요의 특징에 대한 학습에서 이미 각 지역의 음계와 특징을 학습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학습활동으로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도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학습활동으로 7차 교과서의 제재곡인 ‘농부가’의 학습활동은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을 익히고 장구와 소금 반주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제재곡인 ‘강강술래’의 학습활동은 ‘강강술래’의 유래와 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중모리장단의 학습과 나아가 변형 장단을 만들어 쳐보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는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강강술래’의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경기민요와 같이 두 제재곡의 악곡은 다르지만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경기민요와는 다르게, 남도민요 제재곡의 학습내용을 통해 발견된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긴·자진 형식

두 곡 모두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인 ‘긴·자진 형식’의 대표적인 악곡이다. 따라서 7차 교과서는 ‘중모리장단’의 긴 농부가에서 ‘중중모리장단’의 자진 농부가로 이어지는 전체 악보를 수록한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자진모리장단’의 자진 강강술래는 생략하고 ‘중모리장단’의 긴 강강술래의 악보만을 수록하였으므로 7차 교과서에는 제시된 ‘긴·자진 형식’에 대한 설명을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중모리장단’의 악보만을 수록하였으므로 ‘긴·자진 형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긴·자진 형식’에 대한 내용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고 7차 교육과정에만 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는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

명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첫 민요악곡인 몽금포타령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진도아리랑’ 등의 잘 알려진 남도민요를 수록할 수도 있었으나 굳이 ‘강강술래’를 수록하였으므로 ‘강강술래’의 형식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되었다면 국악에 대해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되었을 것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㉔ 악보

앞서 언급한 악보 수록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7차 교과서의 ‘농부가’는 ‘긴·자진 형식’에 의해 ‘긴 농부가’와 ‘자진 농부가’의 모든 악보를 수록하였으며 ‘긴 농부가’와 ‘자진 농부가’의 각 악곡의 1절과 2절, 혹은 3절의 가락을 실제 악곡대로 모두 수록하였다. 따라서 1, 2, 3절의 ‘메기는소리’에 따른 가락의 변화도 학습할 수 있으며 실제 악곡을 왜곡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강강술래’는 ‘자진 강강술래’의 악보는 수록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중모리장단’의 ‘긴 강강술래’ 악보 수록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1, 2절이 다른 가락임에도 불구하고 1절 가락에 2절 가사도 함께 적어 3줄로 축약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다른 민요곡이 그러하듯, 악보와 학습활동을 무리하게 모두 한 페이지에 수록하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악보 수록은 7차 교과서의 남도민요 악곡과는 달리 본래 악곡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가락으로 강강술래의 1, 2절을 학습함으로써 어려운 남도민요에 대해 그나마 조금은 덜 어렵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㉕ 장단

두 교과서 모두 ‘중모리장단’으로 악곡이 시작되므로 ‘중모리장단’에 대한

악보와 학습활동이 제시된 것은 동일하지만, 7차 교과서의 제재곡은 ‘긴·자진 농부가’의 악보가 모두 수록되었으므로 중모리장단과 함께 ‘자진 농부가’의 장단인 중중모리장단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제재곡은 중모리장단의 ‘긴 강강술래’ 악보만이 수록되었으므로 중모리장단만을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경기민요인 널리리야에서 굿거리장단의 변형을 통한 창작과 심화학습을 제시한 것처럼 남도민요에서도 중모리장단의 기본 장단 학습에서 나아가 ‘중모리 장단’을 변형하도록 함으로써 장단에 대한 창작활동과 함께 중모리장단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7차 교과서 제재곡만의 학습활동

7차 교과서의 농부가에는 학습활동과는 별개로 제재곡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토의’활동을 제시하였다.

토의내용은 판소리 “춘향가”중에서 ‘농부가’와 전라도민요 ‘모심기소리(상사소리)’를 감상하면서 우리나라 민요 형식인 ‘긴·자진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또한 7차 교육과정의 ‘긴·자진 형식’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7차 교과서의 ‘농부가’의 학습활동 중 장구와 소금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활동이 있는데, 교과서 내에 소금의 운지법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된 내용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학습자들이 본 제재곡을 소금으로 연주하라는 활동인지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악기로 연주하기에 남도민요의 시김새는 매우 어려운 표현이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7차 교과서의 아리랑 제재곡의 학습활동 또한 단소 연주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없이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짐작한 것일 뿐이므로, 학습활동으로써 기악활동을 필요로 할 때는 악기 연주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㉔ 2007년 개정 교과서 제재곡만의 학습활동

2007년 개정 교과서 강강술래만의 학습활동은 악곡의 제목 그대로 ‘강강술래’의 특징에 대한 학습활동이다.

먼저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강강술래’의 유래와 놀이에 대해 알아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강술래’에 대해 ‘정월 보름이나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원을 그리며 춤추고 놀 때 부르는 노래’라고만 간단하게 정의한 내용은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한 설명도, ‘강강술래’가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에 대한 설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메기고 받는 소리로 불러보자’는 활동은 ‘강강술래’놀이를 직접 체험해보자는 활동이므로 신체표현을 접목시켜 효과적인 제재곡의 학습을 유도하기에는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보았으나,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라는 활동은 중모리장단의 느린 ‘긴 강강술래’보다는 빠른 ‘자진 강강술래’를 부르며 할 때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신체표현이라고 판단되므로 ‘긴 강강술래’ 제재곡과는 부적합한 활동이라고 판단되었다.

⑤ 동부민요

동부민요의 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경상도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와 ‘성주풀이’, 그리고 함경도민요인 ‘신고산타령’이 수록되어있으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경상도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교과서의 민요 제재곡 중 유일하게 공통으로 수록된 악곡인 ‘쾌지나 칭칭나네’에 대해 비교해보았으며, ‘쾌지나 칭칭나네’ 또한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하여 ‘자진모리장단’으로 끝나는 일종의 ‘긴·자진 형식’의 악곡이라고 볼 수 있다.

㉕ 학습활동

두 교과서에서 ‘쾌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으로써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

는 내용은 경상도민요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메기고받는소리로 흥겹게 노래하자는 학습활동이다.

이 외에도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는 메기는 부분의 가락과 가사를 바꾸어 노래해보자는 활동과 사물놀이 악기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불러보자는 활동, 그리고 ‘토의’활동으로써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는 공통된 학습활동 외에 굿거리에서 자진모리의 장단 변화에 따라 노래의 느낌의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는 활동만이 제시되었다.

㉔ 메기고 받는 소리

두 교과서의 공통된 학습활동 중, 경상도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메기고받는소리’로 나누어 흥겹게 노래해보자고 한 학습활동을 토대로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해 두 교과서가 어떻게 수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7차 교과서의 경우, 제재곡인 ‘쾌지나 칭칭나네’의 악보 아래쪽에 ‘이해’활동으로써 수록되었으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는 동일한 악곡인 ‘쾌지나 칭칭나네’가 아닌 민요 중 첫 곡으로 수록된 ‘몽금포타령’의 학습활동과 함께 수록되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간단하게 정의만을 제시한 반면, 7차 교과서의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이는 민요 제재곡당 한 페이지 밖에 여유 공간이 없는 2007년 개정 교과서와는 달리, 7차 교과서의 제재곡은 교과서 내에서 두 페이지를 활용하여 충분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나라 민요가 갖는 형식이기도 한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하게 설명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 민요와의 연관성과 유래 및 의의 등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7차 교과서의 구성이 더욱 효과적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도 7차 교과서의 설명처럼 좀 더 자세히 다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두 교과서에 수록된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38>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의 차이

메기고받는소리	
7차 교과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민요는 일을 하면서, 혹은 즐겁게 놀이를 하거나 의식을 거행하면서 불렀다. 이 가운데 일노래는 대개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받는 소리’는 단순하고 짧으며 의미 없는 가사인 경우가 많고, 가락은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다. ‘메기는 소리’는 주로 일꾼 중에서 가장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한 사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럿이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 효율도 높아질 뿐 아니라, 해학적인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고된 노동의 순간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	한 사람의 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서 부르는 것이다. 앞소리는 사설의 내용이나 부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 뒷소리는 대개 가사와 가락이 단순하고 일정하다.

㉔ 7차 교과서만의 학습활동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학습활동 외에도 7차 교과서에는 사물놀이 악기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불러 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물놀이’에 대한 학습활동을 위해 ‘사물놀이’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사물놀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풍물놀이 음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연주하는 타악 합주이다. 장구·북·꽹과리·징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또한, 네 가지의 사물놀이 악기로 연주할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의 악보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

<교과서 자료 11> 7차 교과서 p.45 캐지나 칭칭나네-사물놀이

㉒ 사물놀이 악기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불러 보자.

[굿거리장단]

장구	⓪		ㅣ	○	ㅣ	○		ㅣ	○	ㅣ	
꽹과리	○○	○		○		○	○		○	○	
북	○			○		○			○		
징	○										

[자진모리장단]

장구	⓪			⓪			⓪		ㅣ	○	
꽹과리	○	○	○	○		○	○			○	○
북	○			○		○				○	
징	○										

*‘사물놀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풍물놀이 음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연주하는 타악 합주이다. 장구·북·꽹과리·징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위와 같은 학습활동은 ‘사물놀이’에 대한 학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설명과 부적합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사물놀이’ 연주에 사용되는 장단이 아닌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을 사물놀이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사물놀이’학습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캐지나 칭칭나네’ 제재곡에 왜 갑자기 사물놀이 악기가 등장하였는지 학습활동의 구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물놀이 악기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불러 보자

고 하였는데, 사물놀이 악기의 합주는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노래의 반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악기편성이다. 따라서 사물놀이 악기로 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자는 활동 역시, 음악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차 교과서의 ‘쾌지나 칭칭나네’ 제재곡과 사물놀이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서는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㉔ 2007년 개정 교과서만의 학습활동

경상도민요의 특징과 ‘메기고받는소리’로 노래 부르는 활동 외에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쾌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으로써 굿거리에서 자진모리의 장단 변화에 따라 노래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굿거리장단에서 자진모리장단으로 변하는 제재곡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적합한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상도민요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노래 부르는 활동을 제외한 제재곡만의 학습활동으로 장단변화에 따른 느낌에 대한 한 가지 활동밖에 없어 제재곡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상으로 두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과 지역별 악곡이 수록된 경기, 남도, 동부민요의 악곡을 비교해본 결과, 민요의 특징과 민요악곡들을 수록한 방식에 있어서는 각각 별도로 수록한 7차 교과서에 비해, 민요의 특징과 제재곡들을 한데 묶어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록한 2007년 개정 교과서가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각 민요의 제재곡과 학습활동을 비교함에 있어서 수록된 페이지에 관

한 비교는, 한 페이지에 집약적으로 수록하기 위해 제재곡의 악보를 줄이거나 기본적인 학습활동에 그쳐 제재곡을 심도 있게 학습하도록 구성하지 못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 두 페이지를 활용하여 제재곡의 긴 악보도 충분히 수록하고 다양한 학습활동과 ‘이해’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7차 교과서가 제재곡을 학습하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비교에서 7차 교과서는 두 페이지의 충분한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실제 학습활동의 양은 2007년 개정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게 제시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심도 있는 학습은 아닐지라도 학습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록 내용은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의 차이가 교과서 수록내용과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내용 및 수준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내용이 7차 교과서에 비해 양적으로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비교적 쉽게 조절되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악에 관한 학습내용이 쉽게 조절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에 대한 학습양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IV. 결론 및 제언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정확한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수업 계획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그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가 새롭게 검정·출판되어 2010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사용됨에 따라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의 차이와 그에 따른 개정 전과 후의 교과서의 수록 내용 및 학습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비교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개정 전·후의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백병동·최현·문경해·홍기순·김은하 공저)의 국악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교과서의 흐름과 구성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교과서의 변화는 교육과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시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다. 2007년 개정 교과서는 활동 중심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재곡과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다양하게 개선되기도 하고,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세부항목이 축소되고 간결해짐에 따라 제재곡에 따른 학습내용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연구 결과, 7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2007년 개정 교과서의 5가지의 장점과 3가지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악곡이 수록되었다. 각각의 제재곡이 독립적인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다른 악곡과의 연계성이 없었던 7차 교과서에 비해 서양음악과 국악은 물론, 교과서 내의 다른 악곡과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악곡을 수록함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모든 주제를 하나의 단원으로 분리하여 수록하였다. 대부분의 ‘이해’

활동이 제재곡의 학습활동 외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수록되어있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가창활동과 감상활동으로 크게 이분화 되어있는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수록된 모든 가창곡이나 이해활동 및 감상활동 등을 하나의 주제로 분리해서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다루었다.

셋째, ‘단소’ 학습의 경우,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자세한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이해와 개념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평시조’ 학습의 경우,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어려운 주제를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민요’ 학습의 경우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제재곡이 별도로 수록된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민요의 특성에 이어 각 지역별 대표 민요 5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다양한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한 단점도 발견되었다.

첫째, 국악에 관련된 창작활동의 비중이 매우 감소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악곡마다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국악 관련 창작활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특히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활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서양음악의 화성에 기초한 가락 짓기 형식만이 제시되고 국악에 대한 가락 짓기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단소학습을 통해 제시된 ‘정간보’의 가치와 유래에 대한 설명이 7차 교과서는 ‘4컷 만화’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도 효과적으로 수록된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정간보’에 대해 몇 문장의 글을 통해 단순한 정의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셋째,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5곡의 각 지역별 민요에 대한 학습활동이 각 지역 민요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나 활동이 없고 제재곡으로써의 민요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개정 전의 7차 교과서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진자료와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음악 하기’활동을 추구하였고, 악곡마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비교학습과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수록하였으며, 어떠한 악곡이나 주제에 상관없이 자세하게 학습내용을 수록하고 주제별로는 단계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과서의 개선된 구성방식에 의해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쉽게 알 수 있어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하며, 학습자 또한 어떠한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다양한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7차 교과서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과 축소된 활동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창작활동과 같이 국악과 서양음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항목에 한해서는 교과서 내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전·후 교과서 비교 분석에 목적을 두고 동등한 분석조건을 위해 개정 전과 후의 집필진이 동일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를 선정하여 국악부분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나 국악 부분 수업에 적합한 구성을 지닌 교과서를 찾고 보다 나은 국악 수업 계획 구상을 위해서는 천재교육 이외의 교과서에 대한 개정 전·후 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16종 교과서의 국악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포함하여 앞으로 제작될 교과서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체육,음악,미술)』. 광주 : 한솔사
- 백병동 외 4인. (2008). 『중학교 음악 1』. 서울 : (주)천재교육
- 백병동 외 4인. (2010). 『중학교 음악 1』. 서울 : (주)천재교육

2. 국내 학위논문

- 권은주. (2003).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의 전통음악 분석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가숙. (2003). 제6·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교육과정 연계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 (2007).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 (2009). 제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 중학교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미. (2010).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 : 고등학교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200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9). 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모라. (2001).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5종의 비교 연구 :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균. (2000). 6차·7차 음악교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 (200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교과서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주. (2007). 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연구 : 초등 음악과 전통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comparison analysi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textbook for first 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by revision from The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to the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of 2007

Yu, Jin joo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and analyze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textbook for first 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made by Chun-Jae Education Company with a follow-up result of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of 2007.

This dissertation includes the comparison of textbook cont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etween the old and new textbooks which has been revised in 2007 and used from 2010 for first 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For this research, the textbook of Chun-jae Education Company revised by the same author was used.

Firstly, the contents standards of music class for the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of 2007 was

compared, and Korean musical pieces and learning contents in each textbook with relevant curriculum was analyzed. And also, Pyeongsijo and Minyo, representative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textbook, were analyzed in detail with focusing on the learning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ree weak points and five benefit points has been found in the process of revision from the 7th textbook to the revised textbook of 2007.

The benefit point of revised textbook is that firstly, the musical notes have been included for easy comparison and learning. Secondly, each subject has been segregated by each chapter. Thirdly, in case of Danso, the curriculum has been structured to learn on steps. Fourthly, in case oh Pyeongsijo, various methods have been identified to provide effective learning for a difficult topic. Lastly, in case of Minyo, Minyo from five different provinces has been included to compare and learn the unique characteristic point of Minyo from each province.

On the other hand, the weak point of revised textbook is that firstly, creative activitie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Secondly, the details of "Value and History of Jungganbo" have been reduced to a simple definition compared to 7th textbook. Lastly, the learning activities of Minyo musical note was not provided with significance except for characteristic of Minyo in each province.

With above comparison, it is found that the revised textbook of 2007 includes more pictures and various learning methods to effectively provide teachers and students with more music focused activities.

However, the contents which are not considered in the revised textbook of 2007 need to be included, and the contents which are common

to both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Western music need to be equally leveraged in the textbook. Furthermore, the research of revised textbook should be expanded beyond Chun-Jae Education Company's textbook for improvement on better music education

This research on comparison of textbook based on different curriculums is carried on in expectation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better music education environment.